

제1회 인천 초등
수업사례 공모전 작품집

**교사, 수업을 통해
성장을 말하다!**



제1회 초등 수업사례 공모전 자료집 '교사, 수업을 통해 성장을 말하다!'를 펴내며..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교육격차 등...

급격한 시대 변화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지금 우리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유동적이고 복잡한 미래 사회에 대응하여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학생성공시대'라는 지향점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성공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여기 교실을 지키는 선생님들께 있습니다. 수업의 작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배움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모두가 꿈꾸는 학교의 희망을 그리기 위해 지금도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도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며 절망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밝은 웃음, 동료 교사들과의 나눔을 통해 작은 성장과 성공을 토대로 교육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고군분투기, 신규 선생님들의 수업 성장통, 좌충우돌 1학년들의 교실 이야기, 더불어 성장하는 학년, 학교, 전학공 이야기...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학생, 동료 교사와 만나며 겪은 성공, 실패, 좌절, 그리고 계속되는 도전, 그 모든 소중한 수업 경험들을 생생한 이야기로 엮어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소중한 수업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교사, 수업을 통해 성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운영한 제1회 초등 수업사례 공모전에는 36편의 선생님들의 생생한 수업 사례와 성장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담담하게 써 내려간 성장 이야기들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실 모든 선생님들께 위로와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2022.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제1회 인천 초등
수업사례 공모전作品集

교사, 수업을 통해

제1회 인천 초등 수업사례 공모전作品集
〈교사, 수업을 통해 성장을 말하다〉



최우수작

1부 _ 나의 수업 성장 이야기

· 6학년 체육전담교사 운동장라이프 생존기 / **송의초 교사** 최은정 008

우수작

· 굴현동의 <책 읽는 환경 파수꾼>으로 담당해지기 / **굴현초 교사** 김혜진 014
 · 나눌수록 커지는 교사의 위상, 토론과 함께 살려본 10년의 교직 / **학익초 교사** 임채환 020
 ·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고 넓어지는 나의 교실 이야기 / **조산초 교사** 황재은 028

임상작

· 감정적 문맹 시대, 공감 콕콕(Empathy nedge) 감정 수업으로 성장하는 우리들 / **효성남초 교사** 김현미 036
 · 우리만의 색깔로 만든 무지개빛 수업 이야기 / **인동초 교사** 박지혜 044
 · 국가대표 1학년과 국가대표 선생님 / **인천한누리학교 교사** 석경원 050
 · 극한 전담, 음악 전담으로 살아남기 / **작전초 교사** 신주은 056
 ·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더라 / **문남초 교사** 안원근 060
 · 선생님도 1학년은 처음이라 / **만수북초 교사** 원지현 064
 · 필리핀과의 교육 교류를 통한 우물 안 중견교사 성장기 / **초은초 교사** 이해미 068
 · 1학년에게 접속하는 방법 / **별빛초 교사** 이효진 076
 · 원칙과 사랑을 지키며 성장하는 교사 / **부광초 교사** 최명진 082
 · 즐거운 수업?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 **작전초 교사** 최현선 088

최우수작

2부 _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수업 이야기

· 라라라~ 유튜브 라방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배움 일지 / **간재울초 교사** 유미경 096

우수작

· 함께 가면 더 좋은 길_ 뜻 모아, 배움 모아, 우리들의 전.학.공 이야기 / **대화초 교사** 김지혜 102
 · 기록과 나눔의 힘으로 함께 성장하는 우리 학년 / **서흥초 교사** 정명근 110
 · 아이들과 함께 꿈지락꿈지락 / **대화초 교사** 백사무엘 116



성장을 말한다!

입상작

- 천명의 아이들을 품은 선생님들과 함께 성장하다! / **백석초 교사** 김동민 122
- 초보부장 비망록 / **하늘초 교사** 김세중 128
- 작은 물방울이 누군가에게는 웅덩이가 될 수 있다면~ / **계양초상야분교장 교사** 우병호 136
- 자연과 삶을 연결하는 4계절을 품GO 생태수업 / **동수초 교사** 조교금 142
- 열정 가득 전문가, 관교 B·T·S 이야기 / **관교초 교사** 한정선 150
- 함께 만드는 과정중심평가 연구회의 한걸음 / **고잔초 교사** 홍문선 156

최우수작

3부 _ 학생성장을 지원한 고군분투기

- 단 한 명을 위한 한글 전문가 / **용학초 교사** 원나연 162

우수작

- 그 동안 학생들의 글을 보며 생각한 것 / **건지초 교사** 김태호 168
- 교실에 서 있는 이유 / **은지초 교사** 박진 176
-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 되기 / **송의초 교사** 최인숙 182

입상작

- 아이야,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 **송의초 교사** 공경아 186
- 인공지능활용수업으로 협업하며 성장하는 아이들 / **금마초 교사** 공민수 192
- 그림책 프로젝트 수업? 너도 할 수 있어! / **백학초 교사** 김연주 198
- 놀이로 배우는 삶 / **대화초 교사** 김진우 204
- 양기를 거부하는 금쪽이와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 / **만월초 교사** 소미옥 208
- 삼실반, 날아오르다! / **계양초 교사** 오윤희 214
- 우리반의 나쁜 씨앗, 꽃이 필 때 까지 / **운서초 교사** 이민주 218
- 배공! 한쪽! 스공! 그래서 열공 성공 / **효성남초 교사** 전해영 224

학생성공시대를 위한 인천교육

제1회 인천 초등
수업사례 공모전 작품집

교사, 수업을 통해
성장을 말하다!

1부



나의 수업 성장 이야기



6학년 체육전담교사 운동장라이프 생존기

체육전담이 그냥 커피라면
강당 없는 학교 체육전담은 T.O.P다.

인천송의초등학교 교사 최은정

체육 수업 특수성 이해 (feat. 기상캐스터 고글맨)

사 계절이 뚜렷하고 적당한 강수량과 온화한 기후로 살기 좋은 우리나라. 강당이 없는 대한민국 초등학교의 체육전담교사는 운동장에서 매년 새롭게 감탄한다. '와씨... 날씨 진짜...!' 미세먼지가 가득한 봄, 작렬하는 태양빛의 여름, 입이 떡 벌어지는 일교차가 일상인 가을, 손발 끝의 감각이 무뎠어지는 혹독한 칼바람 휘날리는 겨울. 예상치 못하게 내리는 마른하늘의 비와 당황스러운 태풍 소식까지... 까다롭고 변덕스러운 그날그날의 기상 상황 때문에 헛웃음이 삐죽삐죽 새어나온다.

체육전담교사는 날씨에 민감하다. 우리학교는 현재 운동장 외에 체육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비 오는 날에는 꼼짝없이 교실체육을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도 체육수업장소는 아주 큰 관심사이기에 나는 아침에 눈뜨자마자 가.장.최.신.의 일기예보영상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기상정보의 생명은 시의성. 무조건 실시간! 여의치 않다면 가장 최근 기사를 보고 수업장소를 결정한다.

학기 초,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완벽하게 벗어나던 날을 잊을 수 없다. 잠들기 전 확인했던 비 예보를 곧이곧대로 믿고 교실에서 체육수업을 했지만 온다는 비는 내리지 않았고 그 대신 학생들 원성이 폭우처럼 쏟아졌다. 얼마 전 복도를 걸어가는 한 학생이 교실체육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비오는 구나'하고 스쳐 지나간 적이 있다. 웬지 모를 뿌듯함이 차올랐다.

체육전담교사는 세상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패션창시자가 되기도 한다. 올 한해 우리 학교 안팎에서는 두 가지 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학교 바로 옆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재건축공사와 둘째, 학교 안에서 다목적강당 신축공사가 그 주인공이다. 무릇 체육전담교사는 학생들의 활발한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 움직임이 편한 상, 하의와 햇빛을 가려줄 적당한 모자를 착용한다. 하지만 나는 이에 그치지 않고 스키고글 아 이 템 을 추 가 장 착 하 였 다 . 긴 팔 & 긴 바 지 트레이닝복+캡모자+스키고글 3가지 아이템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은 미세먼지, 모래, 햇빛, 자외선 대응전략으로 탄생하였다. 눈 덮인 설산이 아닌 모래밭 위에서 쓰는 스키고글. 언발란스의 끝판왕이지만 미세먼지 완벽 차단엔 그만한 것이 없다. 직사광선 아래에서도 편안한 얼굴로 학생들을 마주할 수 있다. 소중한 학생들은 햇빛을 등지고 스키고글로 얼굴 반을 덮은 날 바라본다. 오늘도 난 학생보다 먼저 지치지 않기 위해, 거친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운동장에 나가기 전 거울 앞에서 완전 무장을 한다.

체육수업은 주로 운동장에서 이루어지지만 상황에 따라 갑작스럽게 교실수업으로 대체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변수는 언제 어디서 등장할지 예상할 수 없으므로, 수업장소가 바뀌더라도 학습 목표도달에 차질이 없도록 학습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실내·외 활동을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생각과 나름의 연구가 쌓이다보니 임기응변을 발휘할 수 있는 센스가 늘었다. 덕분에 학생들은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를 마주하면 아쉬워하지만 교실에 들어가도 대체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연스럽게 교실로 향한다.

체육수업 관리 전략 (feat. 인간 작도기)

초등학생 선호도 과목 부동의 1위는 단연코 체육이다. 하지만 6학년의 경우 분위기가 다르다. 아직도 체육이 정말정말 좋다고 신나게 뛰쳐나오는 학생들 뒤로 세상만사 귀찮은 표정으로 밀려나오는 학생들 그리고 자신감 없이 쳐진 어깨와 무거운 걸음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있다. 애석하게도 공 하나에 열광하는 나이가 지났다. 까다로운 6학년 학생의 확실한 학습 동기유발을 위하여 나는 인간 작도기가 되었다.

라인기를 들고 마사토 운동장에 육상트랙을 그린다. 또 다른 날에는 배구코트를 그린다. 또 다른 날에는 배드민턴코트, 족구경기장, 티볼경기장, 피구경기장, 플라잉디스크얼티미트 경기장까지... 오직 6학년 학생들을 위해 모래바닥 예술가가 된다. 라인기를 들고 운동장을 가로지르면서 안 맞는 부분을 발로 문질러 지우고 다시 그리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다보니 꽤나 번듯한 경기장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걸음보폭 70cm, 신발길이 26cm, 스탠드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 3.5m... 신체와 학교지형지물을 활용한 나만의 거리측정법을 만들어냈다.

인간 작도기의 예술활동은 다행히도 학생들의 내적동기 자극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학생들은 운동장에 그려진 정식규격의 경기장을 보고 학습활동과 학습과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진짜 학생선수가 된 듯 진지한 태도로 경기에 임했고, 경기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으며 공정하고 정직한 판정을 내리며 페어플레이정신까지 발휘하였다.

1학기 초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완성한 운동장 수업약속(준비운동, 휘슬신호, 팀나누기방법, 학습마무리 절차)과 교실수업약속(활동공간 마련방법, 실내준비운동, 집중수신호, 움직임약속)에 교사의 노력이 조금 더해져 보다 즐겁고 알찬 체육수업이 만들어졌다.

체육수업 지도 전략 (a.k.a. 깔끔하게 센스있게!)

우리 학교 운동장은 매우 넓다. 동시에 5학급이 체육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다. 강당이 없으므로 학교 운동장은 늘 많은 학생들로 붐빈다. 활기찬 운동장,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아이들 웃음소리와 응원소리, 같은 팀원에게 보내는 콜싸인, 주체할 수 없는 환희의 돌고래 비명 사이로 선생님들이 처절하게 그리고 애처롭게 학생들을 부른다. (실외마스크 해제 이전인 올해 3~4월에는 마스크에 목소리가 가로막혀 더욱 곤욕스러웠다.) 교실 안이었다면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선생님의 표정도 운동장에서는 영 힘을 쓰지 못한다. 체육수업이 개방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학생들이 집중력이 학습주제에서 벗어나거나 교사의 지시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주의 집중을 끌기위해 목소리를 크게 사용하면 오히려 영락없이 목을 부여잡고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소중한 나의 고운 목소리를 지켜내고, 학생들의 학습 증진을 위해서 3가지 특별한 체육수업 지도 전략을 펼쳤다.

첫째, 간결한 핵심지도. 학생들의 주의 집중 시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교사의 긴 설명은 안 하니만 못하다. 설명은 아주 간결하게 하고 학생들은 듣자마자 바로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운동장에서는 핵심단어만 나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유심히 관찰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교정해줄 때에도 단어와 동작으로 단서를 제공하였다. 학생을 바라보며 “팔꿈치 떨어지지 않게”라고 짧게 말하고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장착. 끝.

둘째, 정확한 시범.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멋진 것은 없다. 운동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활용하여 시범을 보이는 것도 좋지만 교사의 시범은 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과제 전달을 시범으로 하는 멋진 교사는 학생들의 관심과 존경심을 한 몸에 받는다. 멋진 시범에 학생들의

주의집중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정확한 시범이 곧 정확한 과제전달 능력이다. 나는 새로운 주제를 나가기 전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동작, 기술을 연마하고 학생들 앞에서 능청스럽게 시범을 보였다. 학생들은 교사 시범을 보며 필요한 정보를 얻고 동작을 재현하며 학습했다.

셋째, 즉각적인 피드백. 학생들이 수업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일 때에는 바로 잘못을 지적하거나 경고를 주고, 올바른 행동과 동작수행에 발전이 있을 때에는 엄지를 추켜올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경기나 활동이 과열되어 자칫 험악한 말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체육수업 안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비과제 행동을 최소화하고 학습활동에 집중력과 과제수행능력을 기르고 바람직한 스포츠맨십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육수업 평가 전략 (a.k.a 우영우- 우리가 영글어낸 결과는 우리가 직접 평가한다.)

체육전담교사로서 학생들이 즐겁게 학습에 참여하고, 자신의 향상에 만족감을 느끼며 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 체육시간만큼은 압박이나 부담 없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함께 체육수업평가에서 부담요소를 제거했다. 학생들이 꿈은 부담요소는 3가지였다. 기능실기검사 아웃, 진지하고 딱딱한 분위기 아웃, 선생님 아웃. 이로써 배움의 시작과 끝을 행복하게 이어주는 우영우(우리가 영글어낸 결과는 우리가 직접 평가한다.) 평가가 만들어졌다.

우영우 평가는 학습의 과정, 결과, 발전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학생들은 함께 연습하며 서로의 성장과 노력을 직접 느낀다. 가까운 곳에서 친구의 변화를 관찰하고 변화된 실재를 확인한다. 교사가 놓칠 수 있는 순간을 친구들이 함께하여 증명한다.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학습향상도를 평가할 수 있다.

우영우 평가는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능력을 키워주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평가의 주체가 된 학생들은 응원과 피드백을 나누며 의사소통한다. “지난 주에 연습했던 대로 해봐. 괜찮아 긴장해서 원래 실력이 아직 발휘되지 않았어. 내가 중간으로 띄워볼테니까 네가 마무리해줘” 편안한 분위기로 경기를 운용하며 협력하여 플레이를 만들어간다. 학생들이 상호 작용하며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

교사가 모든 학생의 행동을 빠짐없이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편적인 부분만으로는 학생이 쌓아온 오랜시간의 노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실제 경기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행력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수행평가방법이지만 그 때마다 운 나쁘게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평소기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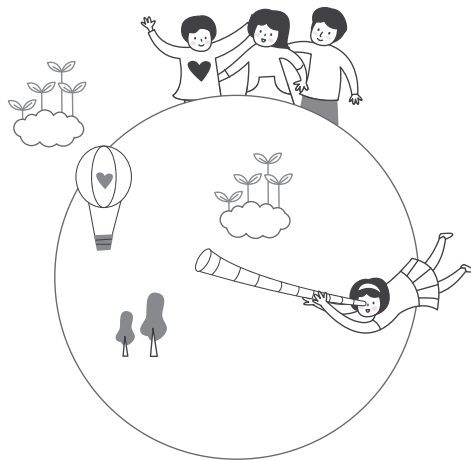
선보이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평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영우 평가는 학생들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의 학습 진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성취결과, 동작 수행 정확도, 참여 빈도, 규칙준수, 게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아주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기능하였다. 학생이 자신과 친구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주었다. 우영우 평가를 바탕으로 학습목표도달여부를 진단하고 다음 단계의 목표를 설정하여 학습 진도를 결정하였다.

마치며...

체육전담교사를 맡고 있지만 체육교과 지도는 정말 쉽지 않다. 신경 쓸 것도 많고, 준비할 것들도 적지 않다. 더구나 강당이 없다면? 상상이상이다. 체육전담이 그냥 커피라면 강당 없는 학교 체육전담은 T.O.P.다. 막막함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 때가 있지만 체육전담교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역시 학생들이다.

체육교과가 인기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체육교사는 이미 인기스타이다. 먼발치에서도 학생들이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한다. 주간학습시간표를 받자마자 체육시간에 동그라미를 치는 학생들을 보며 학생들의 기대와 사랑이 식지 않도록 조금 더 연구해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올 한해 기미 옵션이 자동 추가된 커피빛 피부를 얻었지만 그보다 더 깊고 큰 학생 사랑을 넘치게 느낄 수 있어 감사하다. 아! 차별화된 프리미엄 고급커피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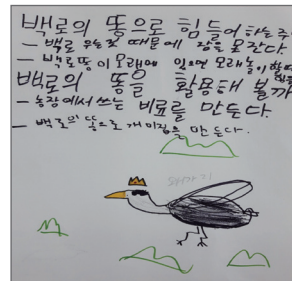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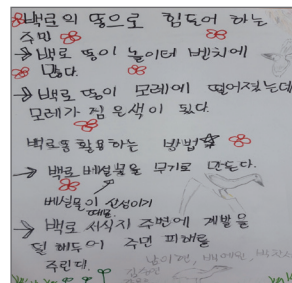
교사, 수업을 통해 성장을 말하다!

굴현동의 <책 읽는 환경 파수꾼>으로 당당해지기

굴현동에 사는 학생에게 지역화 <맛춤식 환경교육> 제공

인천굴현초등학교 교사 김혜진

굴현초등학교에 차로 출퇴근하면 겪는 어려움이 있다. 바로 차량에 새똥 세례를 받게 된다. 여러 번 겪고서야 나는 하늘을 올려보았다. 쪽 뺨은 긴 유선형 몸으로 참으로 여유롭게 비행하고 있는 ‘백로’를 마주하였다. 그 백로가 향하던 곳은 바로 학교 뒤편에 있는 굴현숲과 인천아라뱃길이었다. 계양구청의 보호를 받는 ‘백로’의 서식지인 ‘굴현숲’과 먹이가 있는 ‘인천아라뱃길’이 가까이 있는 특별한 지리적 환경을 가진 굴현초등학교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사회 교과와 지역화! 3학년 학생들에게 백로의 서식지가 계양구 병방동에서 지금의 굴현동으로 이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토대로 ‘계양구’의 지리적 위치를 알려주었다. 나의 설명에 우리 반 학생들은 첫 질문을 하였다. “선생님, 우리 동네에 날아다니던 새가 백로였어요?” 비행장이 가까이 있기에 하늘을 보는 경우가 많은 굴현동 학생들이 ‘백로’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선생님 계양구가 어디에 있어요?”

위성지도와 네이버 지도로 계양구의 위치를 열심히 알려줬다.

하지만 학생들은 먼 나라를 바라보듯 멀뚱멀뚱한 표정이었다. 이러다 안될 것 같아서 굴현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위성 지도를 보여주자 자신이 사는 집과 매일 놀고 있는 공원이 눈에 보인다고 난리가 났다. 그때서야 아차! 싶었다. 굴현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곳은 바로 자신이 매일 걸어 다니고 있는 ‘굴현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도 굴현동만의



환경을 토대로 이루어져야만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의견을 쉽게 끌어낼 수 있고 해결방안도 찾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마디로 환경교육도 사회 교과처럼 이제는 지역화가 되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때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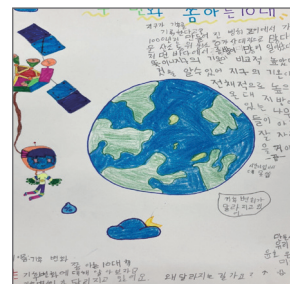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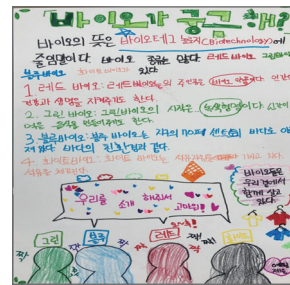
<책 읽는 환경 파수꾼> 되기

2022년 학급경영의 중점으로 학생들과 굴현동에 어울리는 <맞춤식 환경교육>을 해 보기로 나 자신과 약속을 했다. 학기 초 학생들과 친근해지려는 계기로 백로의 똥에 대한 피해를 가족과 주민들에게 조사해 보라는 과제를 주 었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백로의 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해보자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막상 백로의 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교사인 나조차도 표족한 방안이 없는데 나보다 어린 학생들에게 멋진 답을 도출해 내라고 강요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맞춤식 환경교육>을 시도했으나 무늬만 굴현동 학습자료였지 알맹이는 부실한 것 같았다. 그때서야 학생들도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학생들에게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입식 반복 교육을 진행해 왔다.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을 학생들 스스로 찾아볼 기회는 주지 못했다. 올해는 학생들과 환경에 대해 지식을 함께 쌓고 싶었다. 나에게 그런 기회는 ‘독서동아리 공모’로 시작되었다. 공모계획서 제출에 나는 독서교육에 환경교육을 접목시켰다. 그래서 탄생한 동아리가 <굴현초 행복 환경 독서동아리>이다. 학생들을 <책 읽는 환경 파수꾼>이 되었다.

<굴현초 행복 환경 독서동아리>를 통해 학생들과 독서와 환경교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다. 책 선정은 20년의 교육경력으로서 자신감 있게 선택하였다. 독서교육은 행복독서를 읽고 자신을 좀 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환경도사로 선정한 책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환경문제에 관 심을 가지며 고장의 주인의식을 기르도록 하였다. 한마디로 <책 속 보물을 찾고 환경을 사랑하며 소통하기>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과 생각해 볼 환경문제 주제로는 다음과 같다. <우리 굴현동은 환경 문제와 관련 있나? /우리 인천 아라뱃길은 안전한가? / 굴현 뒷산 백로의 똥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굴현동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곳은? /굴현 뒷산 에 어떤 씨앗을 심어 볼까? /굴현동에서 비행기를 자주 보는 이유는? /인천의



제1회 인천 초등
수업사례 공모전 작품집



아라뱃길은 플라스틱으로 아파요!> 생각해 볼 환경문제 주제를 위해 학생들의 흥미도 있고 관련 지식도 쌓을 수 있는 책을 고르면서 재미있고 쉬운 환경도서가 정말 많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웠다.

<책 읽는 환경 파수꾼>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학교와 동네부터!

환경교육은 학교와 교현동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맞았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의 제일 깨끗한 곳과 더러운 곳을 투표로 선정하고 더러운 곳을 자발적으로 청소해 보자는 회의 결과를 도출해 냈다. 자신들이 <책 읽는 환경 파수꾼>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진행하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우리 학교에서 가장 더러운 곳은 바로 운동장이었다.

“선생님 운동장을 청소하려면 어떤 빗자루가 필요해요? 교실에서 사용하던 걸로는 작아서 힘들 것 같은데요?” “나! 보안관 할아버지께서 사용하던 큰 빗자루 본 것 같은데 말하면 빌려주실 것 같은데, 가볼래?” 등 자기를 나름대로 청소도구를 구해서 운동장을 청소하게 되었다.

우리는 자신이 매일 거닐고 다니던 골목길과 놀이공원을 친구들과 함께 환경 파수꾼 입장으로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p>제정일: 2019. 08. 20</p> <p>목적: 학교의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p> <p>대상: 1학년 1반</p> <p>담당: 김민정</p> <p>주요내용: 학교의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p> <p>결과: 학교의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p>	<p>이제부터를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p> <p>1. 가전제품 사용 시 대기 모드 설정하기</p> <p>2. 샤워할 때 찬물 사용 줄이기</p> <p>3. 종이 재활용하기</p> <p>4.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하기</p> <p>5. 물 절약하기</p>	<p>이제부터를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p> <p>1. 가전제품 사용 시 대기 모드 설정하기</p> <p>2. 샤워할 때 찬물 사용 줄이기</p> <p>3. 종이 재활용하기</p> <p>4.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하기</p> <p>5. 물 절약하기</p>
---	--	--



“선생님! 저 버려진 냉장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나요?” “선생님! 쓰레기에 담배꽂초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아빠도 담배를 피우는데 버릴 때 꼭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활터전 골목길과 놀이터가 생각보다 더러운 것에 대해 속상했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환경미화원께도 인사도 하고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 그렇다. 우리의 환경교육은 교실 컴퓨터에서 재생되는 동영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 굴현초등학교만이 가진 뒷산 ‘굴현숲’과 ‘인천아라뱃길’과 더불어 굴현동이라는 훌륭한 환경장소가 있었다.

<책 읽는 환경 파수꾼>은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학생들에게 우리가 굴현동의 <책 읽는 환경 파수꾼>으로 자존감 및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백로의 풍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활용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계양구청 홈페이지 <계양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게시해 보는 게 어떨지 학생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는 이루어 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올려진 것을 보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교사도 학생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순간이었다. 우리가 직접 굴현동 미세먼지를 측정해 보는 경험은 어떨까? <책 읽는 환경 파수꾼>이 직접 미세먼지를 측정해 본다면 환경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욱 커질 것이다. 학생들은 미세먼지 측정기를 신기해 했다.

우리 교실부터 미세먼지를 측 정해 보는데 환기를 하고 안 하고가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다. 그리고 굴현숲, 동네쓰레기장, 버스정류장 등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해 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제 <책 읽는 환경 파수꾼>은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측정하는 동안 학생들의 진지한 눈빛에서 교사로서 정말 뿌듯했다.

<책 읽는 환경 파수꾼>은 가족과 함께 환경에 관심을 가져요!

가정과 연계되는 교육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교육이다. 학생들에게 가정에서 환경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평범한 일상과 작은 습관들이 환경문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늘 먹는 된장찌개 하나도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말 식단 메뉴로 고기를 많이 구워 먹는데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다른 요리과정과 달리 탄소를 많이 배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학생은 “선생님 앞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불을 덜 사용할 수 있는 채소요리를 많이 먹어야겠어요. 살도 뺄 수 있구요.”라고 웃으며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제품을 찾아보고 학교로 가져와서 학생들끼리 서로 보여주고 홍보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부모님의 멋진 환경 파수꾼 모습을 본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젝트 수업으로 친환경제품을 부모님께 선물해 보는 기획도 해 보았다. 학생들은 친환경제품으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제품 수요조사도 직접 하고 주어진 예산에 맞게 제품을 선정해보기도 하며 어떻게 전달할 지 등 모두 학생들이 회의를 거쳐서 스스로 진행하였다. 비슷하게 큰 종이 박스로 자동차 만들기도 도전했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환경교육을 위해서 점검 해 볼 점

1) 환경교육의 지역화가 필요하다.

환경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사실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교사와 학생의 구분 없이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교실 텔레비전으로 재생되는 환경 관련 동영상과 PPT자료로 학생들은 정말 환경보호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였을까? 나는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다. 이제 환경교육도 사회 교과의 ‘지역화’처럼 학생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선생님도! 학생도! 함께 환경교육을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환경교육을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하면 납득이 될까? 교과도 아니고 환경교육을 공부해야 한다는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면서 미세먼지와 탄소중립에 대해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관련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논리적이면서도 쉽게 학생들에게 전달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미세먼지와 탄소중립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환경 파수꾼이 되어 탄소배출을 정말 줄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굴현숲’에 사는 백로종류가 5~7가지이다.

자꾸 헛갈려 교실 한 벽면에 백로의 사진과 이름을 게시하면 1학년처럼 반복하여 읽어보았다. 낯설고 발음하기도 어색했던 백로의 이름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니 백로를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커지는 듯했다.


3)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설정 기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2 곶현초 행복 환경 독서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제일 곤란했던 점이 곶현동 일대의 미세먼지 측정활동이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측정기를 대여할 곳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 학생들과의 약속을 위해서 미세먼지 측정기 대여로 계양구청, 계양2동 주민센터의 환경과에 직원들과 여러 번 연락을 했다. 환경과에서는 계속 전화를 돌려주기만 하고 답을 주겠다고 해 놓고는 1주일 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걸어 보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돌아온 답변은 “감박했다. 미안하다.”는 말 뿐이었다. 결국은 서울 송파구청 환경과에서 나의 교육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토대로 받게 되었지만 정말 그 과정이 힘들었다. 그리고 곶현동에 있는 곶현차량기지의 미세먼지 측정에 학생들이 많은 기대를 하였다. 전화도 해 보고 용기 내어 직접 찾아가서 간청도 해 보았지만 거절당했다. 우리의 교육이 마을연계로 이어지는 것을 지향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겪어야 했다.

환경교육을 마치며

〈2022 곶현초 행복 환경 독서동아리〉를 운영하면서 교사로서 작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40대 중반이지만 신규교사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학생들과 도전을 할 교육영역이 나의 작은 시선의 변화만으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하는 평범하고 정적인 독서교육에 익숙했었다. 하지만 환경교육을 제대로 해 보려고 하니 정적인 교사로서 임계점을 뛰어 넘어야 할 일들이 많았다. 2022년 한해 나에게 그 한계를 넘어 보는 계기가 환경 교육을 통해서였다. 그리고 시도해 보았다는 것에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역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내용으로 잘 전달할지 연구할 때 제일 빛나게 되는 것 같다. 내년에는 곶현초를 떠나서 다른 학교로 가게 된다. 나는 그곳에 가게 된다면 이제는 교실 창문 너머를 먼저 볼 것이다. 그곳 학교의 환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 반 학생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주어야 좋을지 고민을 먼저 할 것이다. 

나눌수록 커지는 교사의 위상, 토론과 함께 살펴본 10년의 교직

인천학익초등학교 교사 임채환

내가 닮고 싶었던 이상적인 선생님

▶ 학생들에게 사고를 치라고 말하는 선생님

어렸을 때 TV에서 '신기한 마법 스쿨버스'라는 만화영화를 방영한 적이 있었다. 선생님을 따라 학생들이 만능도구가 있는 스쿨버스와 함께 야외 수업을 하는 이야기다. 인상깊은 점은 아이들이 문제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담임선생님이 직접 도움을 주기보다 항상 "더욱 사고를 벌이세요! 여러분" 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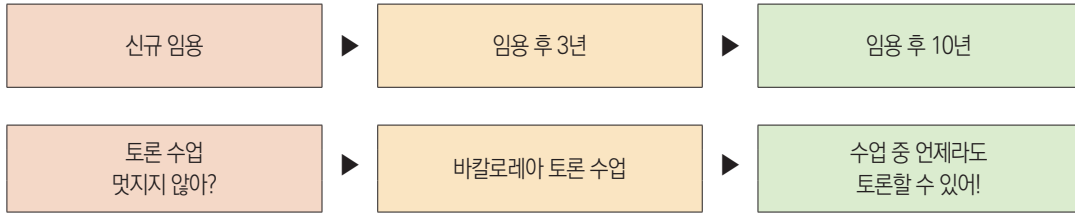
▶ 병리적인 접근보다 학생 내면을 바라보려고 노력한 선생님

나는 초등학생 때 어찌면 ADHD 진단을 받거나 자폐 스펙트럼을 찾아야 했을 정도로 몸서 장난이 많고 말이 많았다. 하지만 담임선생님들은 나를 '산만한 아이'일 뿐 별반 다르지 않은 학생으로서 껄껄 웃으며 반과 함께 받아주실 때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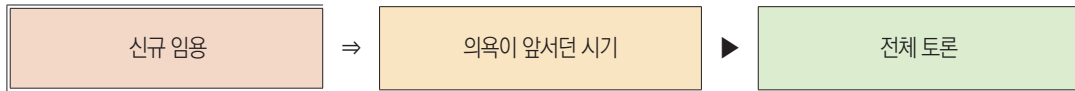


이런 선생님들을 본받아 교직에 들어선 나는 놀랍게도 누구보다도 권위적인 선생님이 되어버렸다. 수업연구와 업무에 쫓기다보니 불안해서 항상 계획한대로 학생들을 통제하고자 했으며 공공연하게 산만한 학생들을 비난하고 그런 학생들이 학업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간이 날때마다 참가해오던 배움중심수업, 행복배움학교와 전문적학습공동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이때 만난 선생님들은 모두 어렸을 때 나 같은 학생을 슬기롭게 지도하셨던 선생님들처럼 학생들을 포용하고 인정하며 민주적이고 즐거운 학업을 경영하고 있었다. 부끄럽지만 교사임용된 지 10년이 된 지금에서야 나의 수업을 되돌아 볼 여유가 생겼다. 신규 때부터 해오던 활동 중 아직까지도 아이들과 가장 즐겁게 진행해온 토론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 성장 기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구나 가졌을 이상적인 선생님에 대한 초심을 다 같이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1. 토론 수업 멋지지 않아? 우리 반도 해봐야지!



의욕이 앞서던 시기

▶ 활동의도 및 목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 참여형 행사로 토론대회가 열린 적이 있었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공개토론을 하기에 손도 목소리도 모두 떨렸지만 우리 의견이 우세하게 판정받았다. 나는 토론대회에서 명확한 근거와 반론을 제기한 승리팀의 주역으로서 단숨에 많은 친구들의 격려와 관심을 받았고, 이러한 성공 경험이 강하게 남아 내가 가르칠 학생들에게도 토론 수업을 적극 권장하고자 했다.

▶ 활동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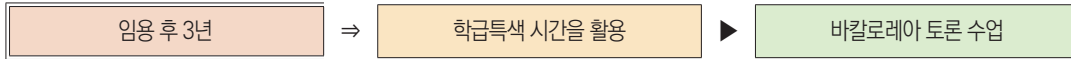
그런데 아불싸! 너무 의욕만 앞선 나머지 초등학교 수준의 수준에 적당한 주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 토론 주제는 어때요?”라고 자신있게 물어보는 학생의 의견은 가치가 없는 토론이라며 가볍게 무시하고 교육과정과 관련되거나 뭔가 있어 보이는 주제만을 고집했다. 결과는? 당연히 반에서 한두 명 만이 간신히 몇 마디 하는 아쉬운 토론이 되었다.

전체 토론

▶ 당시 진행한 토론 활동 순서

1. 국어 교육과정 중 토의·토론 단원이 나오면 재구성하여 교사와 주제 선정
2. 찬성, 반대, 판정단, 사회자로 역할을 나누기
3. 집에서 숙제로 자신의 역할 준비해오기
4. 1차시(40분)간 주장펼치기-반론하기-주장다지기-판정하기 단계로 토론하기

2. 학급 특색 활동이 된 바칼로레아 토론 수업



전체 토론

▶ 활동반성

사실 최근에도 위의 방식대로 전체 토론은 종종 하는 편이고 모든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은 토론방식이다. 다만 이 때 당시에는 학생들의 수준과 역량을 고려할만한 경험이 부족했다.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골랐을 때 ‘선의’가 무엇인지부터 한참 설명해야 했다. 또한 토론을 모두 집에서 준비하게 함으로써 토론을 준비하며 서로 의견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토론 자체도 국어 시간에만 진행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교사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다보니 재밌다기보다는 토론이 어렵고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학급특색 활동을 찾은 시기

▶ 활동의도 및 목표

프랑스에는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라는 대입시험이 있다고 한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사 논술로 학생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판별하는 시험이다. EBS 지식채널로 처음 봤을 때 수능과 달라 꽤 신선하게 여긴 적이 있다. 이것에 착안하여 수업에서의 토론이 시험처럼 까다롭게 여겨지지 않는 방법을 모색했다. 교사가 주제와 형식에 깊이 간섭하는 토론보다 학급특색 활동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스스로 선정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학생들의 이해는 물론 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 의지도 길러보자는 목표도 생겼다.

▶ 활동결과

더 좋은 토론수업을 위해 토론 관련 연수, 워크숍에 참가하여 학습자 전체가 발화할 수 있는 다양한 토론 기법을 배웠다. 나름의 특색을 더하기 위해 오래된 영상이긴 하지만 EBS 지식채널의 영상도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동기유발을 진행했다. 이때 처음으로 국어 시간 이외에 학급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토론 주제도 선정해 보았다. 토론수업은 학급 전체가 즐기는 특색활동이자 학급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바칼로레아 토론 수업

▶ 당시 진행한 토론 활동 순서 (변형 두 마음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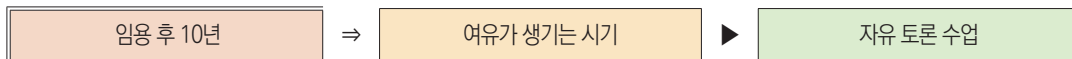
1. 학급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주제를 선정하고 찬성, 반대, 중립의견을 나눈다.
2. 중립의견은 판정자가 되고, 찬성과 반대는 모둠을 만들어 함께 근거를 준비한다.
3. 찬성, 반대는 판정자를 설득하고 판정자는 5분마다 다른 찬·반 구성원을 만나러 간다.
4. 최종적으로 특정 의견으로 설득 당한 판정자의 수로 토론의 승패를 가른다.



▶ 활동반성

두 마음 토론은 모든 학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학습자 중심적인 토론이다. 학생들은 게임처럼 판정자를 설득하는 것을 즐겼고 판정자는 허니컴보드나 자석칠판을 들고다니며 의견을 모았다.

3. 수업 중 언제라도 토론할 수 있어!



토론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시기

▶ 활동의도 및 목표

COVID-19 이후로 교사간 학생간 교류가 많이 부족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학생들의 과제를 즉각적으로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대중화되어 쉽게 서로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도 더 이상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업 중 언제라도 심화된 학생의 질문이나 의견을 모으다가 학급의 의견을 구하는 수업 참여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거시적인 사회문제부터 학급의 문제해결까지 다양하게 다루는 토의, 토론, 주제발표 등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등장했고 학생들이 진지하게 참여해나가기 시작했다.

토론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시기

▶ 활동결과

학생들의 활동 참여에 따라 학급 특색 활동이 바칼로레아 토론, 주제발표, 학급토의 세 가지로 분화되었다. 바칼로레아 토론 시간에는 포켓몬 빵을 사기 위해 줄 서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주제가 등장하였다. 주제발표를 통해 학생의 특기를 수업시간에 강연하는 시간도 가졌다. 학급토의 시간에는 알뜰시장바자회 기부금으로 음료수를 사서 학교방역도우미, 실버도우미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자고 결정한 뒤 최근에 실천하여 큰 보람을 얻었다.

자유 토론 수업

▶ 현재 진행하는 토론 활동 순서)

수업 중 심화된 의견이나 질문이 등장하는 경우 학급회장이 정리한다.

1.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팽팽한 경우 바칼로레아 토론으로 진행한다.
2. 개인이 조사하여 발표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주제 발표로 진행한다.
3. 특정 의견으로 좁혀지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경우 토의로 진행한다.

바칼로레아 토론



주제 발표



학급 토의



▶ 활동반성

토론보다는 실상 학생 중심의 수업 자체로 변모하였다. 다만 나도 한 명의 참가자로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게 무척 즐겁고 학생들도 그것을 자랑스러워 한다

그 시기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교구 및 당시 학생들이 한 말

신규 임용	추첨함, 코팅기, 놀이용 원마커 등
토론 수업 멋지지 않아?	학생들과 다양한 오프라인 소통창구가 있으면 좋음. “우리 담임선생님이 뭔가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임용 후 3년	자석칠판, 허니컴보드, 팀조끼, 역할머리띠 등
바칼로레아 토론 수업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배움중심수업을 하면 좋음. “우리 반은 왜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선생님?”
임용 후 10년	실내용 앰프나 마이크, 스마트패드, 노트북 등
수업 중 언제라도 토론할 수 있어!	수업을 아이들이 진행해주면 서로 편하고 고마움. “선생님 다음 주제발표는 꼭 제가 하게해주세요!”


▶ 권위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제대로 보이는 학급과 아이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학급에 참여하는 태도를 보고 일희일비할 때가 많다. 나 역시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쉬는 시간에 다들 때는 짜증이 많아지며 훈육을 명목으로 잔소리를 하게 될 때가 많다. 때로는 수업연구나 생활지도에 들이는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은 열심히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며 자신이 하지도 않은 잘못을 책망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며 하다못해 그렇게 하려는 시늉이라도 보여준다.

사실 아이들도 매년 바뀌는 새로운 선생님의 학급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느끼지만 교사들처럼 제대로 된 요청이나 항변을 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새로운 관리자나 교육정책을 만나 새로워지는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모종의 피로감을 느끼듯 아이들도 똑같이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소통창구 앞에서는 무기력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기 십상이다.

대부분의 학생 앞에서는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고 권위를 내세울 것도 없다. 어린 학생들이지만 나를 갖고 있는 불만과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줄 친구와 교사, 그리고 학급 환경이 뒷받침되면 저절로 해결되는 일이 많다.

임용 후 10년간 다양한 학급을 경영하며 느낀 점은 교사의 권위와 질서는 내세우려고 노력할 때보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생긴다는 점이다. 선생님들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대한 노력과 고민은 그때 또한 진정한 빛을 발한다. 





교사, 수업을 통해 성장을 말하다!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고 넓어지는 나의 교실 이야기

조산초등학교 교사 황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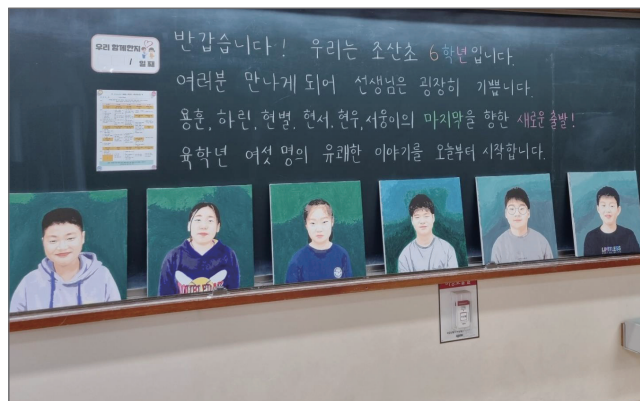
들어가며

동요 ‘멋쟁이 토마토’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야 주스 될 거야 / 나는야 케찹 될 거야 / 나는야 춤을 출거야.
세 번째 토마토에게 있어서 꿈이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토마토는 꿈이란 어떤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다로 나아가길 좋아하는 모어나처럼 이런 저런 일을 벌이며 모험하길 좋아하는 2년 차 신규 선생님과, 목적있는 꿈이 아닌 기쁘게 이 세상의 일부분이 될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6학년 여섯 명이 함께하는 우리 교실. 그 안에 담긴,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 Begin: 첫만남 프로젝트

강화로 신규 발령을 받아 정신없이 1년 차를 보내고 나니 2022년 새 학년도를 준비하는 일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전교생이 45명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우리학교에, 이미 볼 장 다 본 것 같은 큼직한 6학년 여섯 명과 1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1-2월에는 잠도 잘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춤춤 준비하면 설렘이 두려움을 압도한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개학 전 우리 교실에 들어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리며 춤춤한 준비를 시작했고, 겨우내 준비한 멋진 초상화로 새 교실을 열 수 있었습니다. 3월을 잡아야 1년이 편하다는 많은 선배님들의 말씀따라 저도 개학날을 시작으로 일주일 간 우리 반만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가지기 위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래와 같은 계획으로 첫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수 (2일)	목 (3일)	금 (4일)	월 (7일)	화 (8일)
1교시	첫 만남 (자율)	학급 세우기 (자율, 미술, 실과)	나도 공부왕! (자율, 실과)	꿈끼나눔마당 (자율)	학습수준 진단 (수학)
	1. 시업식 2. 선생님 소개 퀴즈 3. 서클링 활동 - '6학년 게임' 종이몽치 던지기 (선생님께 질문, 지금 기분, 작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올해의 마음가짐, 나를 동물에 비유하면? 등)	1.우리가 원하는 반 (PAST&FUTURE) - 지금까지 나의 학교 생활 모습 - 앞으로 우리 반에서의 생활에 대한 바람 (패들렛 활용) 2. 학급 가이드 라인 세우기 -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행동해요	1. 학습 방법 배우기 - 교과서 이름표 만들어 붙이기(미리캔버스 활용) - 교과서 살펴보기 - 배움노트(내용 및 마인드맵) 작성 사례 살펴보기 2. 발표 방법 배우기 - 정답/의견/보충/수정 할 때 방법 익히기 - 돌아가며 발표 연습	- 의형제별 자치활동 참여하기	- 진단도구 활용하여 수학학습 정도 진단
2교시				우리반 데일리 루틴 (자율)	레스웨이트 교실 (자율)
				- 우리 반 무지개 빛 (핵심가치) 완성하기 - 장소별, 상황별 지킬 점들 포스트잇으로 의견 모으기 - 우리 반 데일리 루틴 (약속나무) 만들기 - 변화계획서 작성법 소개하기	- 분리수거 A to Z - 분리수거 관련 그림책 읽고 내글짓기
3교시	나 소개하기 (미술, 도덕)	우리 반 이름 만들기 (자율, 실과)	의미 있는 역할 나누기 (국어, 사회)		장담그기 (실과)
	1. 자리 배치 2. '내게 부족한' 미덕 이름표 만들기 3. 개인 기념사진 촬영 4. '선생님과의 비밀쪽지' 작성	1. 투표를 통해 우리반 이름 정하기 2. 우리 반 이름에 맞는 로고 만들기 (미리캔버스 활용)	- 우리 반에 필요한 역할 생각해보기 -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 반 직업 알아보기 - 월급 통장, 월급 명세서 살펴보기 - 채용지원서 작성하기		- 전통 장담그기 체험
4교시	첫만남 기록 (국어)			우리반 감정 쉼터 (국어)	
	1. 첫 만남 내글짓기 2. 안내장 배부			- '제라드의 우주 쉼터' 읽고 마음의 6단계 알아보기	
5교시	공동체 놀이 (자율)	친해지기 (자율)	진정한 열세살? (국어, 미술)	우리 반 반가 만들기 (음악)	우리 반 반가 만들기 (음악)
	- 청개구리 게임 - 텔레스테이션 - 각종 공동체 놀이	- 6학년 게임 - 너도? 나도! - 각종 공동체 놀이	- '진정한 일곱 살' 읽고, 진정한 열세살에 대한 내글짓기 - '진정한 열세살' 합동 그림책 만들기	- 반가 노래 고르기 - 반가 가사 만들기	- 반가 가사 만들기 - 반가 가사 작품만들기 - 반가 연습하기
6교시	X				

‘6학년은 회차가 지날수록 멋지게 어우러진다!’는 뜻으로 **6회 비빔밥**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만들어낸 우리는, 이름에 맞는 로고와 내 교과서에 붙일 소중한 이름표까지 미리캔버스를 활용하여 손수 제작했습니다.

이무진의 ‘신호등’이라는 노래를 개사하여 소중한 우리만의 반가를 만들고 영상까지 만들어낸 일은, 우리 교실 또 하나의 자랑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동체 게임을 하며 웃음을 나누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도 우리반 아이들은 첫 만남 프로젝트를 가장 인상 깊은 활동으로 꼽아줍니다.

6학년 반가 영상 ▶ <https://youtu.be/m1IX0QkAUy>

2. Apply: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여섯 사람의 한걸음

6학년 6명이 6년간 한 교실에서 지냈다는 사실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착착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신비한 변화가 톡톡 드러나기 시작하는 사춘기 6학년은 생김새도, 키도, 성격도, 공부를 좋아하는 정도 조차도 모든 것이 다른 아이들입니다. 특히 1학년 때부터 떨어져본 적이 없는 우리 반 아이들은 치고박고 해온 경험이 쌓이고 쌓여 서로 깊은 앙금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혼자서 열 발자국 앞서 나가려는 친구에게, 다같이 손잡고 한걸음 나아가자 권한 일조차 쉽지 않았습다.

수업 연구 쪽으론 개인적인 고민도 커졌습니다. ‘한 명이 활동하면 개인 활동이지, 두 명씩 활동하면 짝 활동인가? 세 명씩 함께하면 모둠활동인가? 여섯 명이 다 같이 하면 전체 활동이겠구나. 시내에선 한 모듬 정도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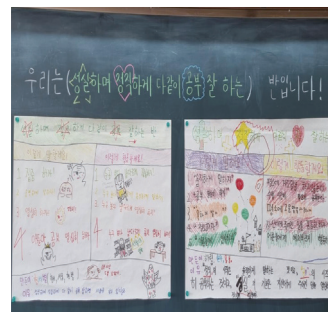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활동 또는 커뮤니티에서 구할 수 있는 학습자료는 한 학급 당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함께하는 교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았습니다. 인원이 적어 활동 탄력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로고 콘테스트를 통해 선정된 학급로고



핵심가치 7개를 활용해 꾸민 앞계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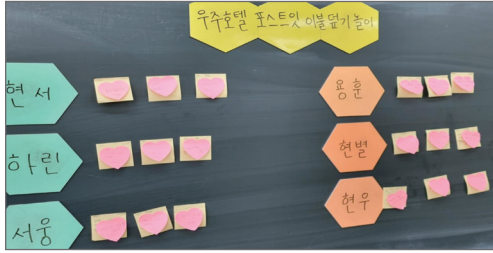


학급 가이드라인 세우기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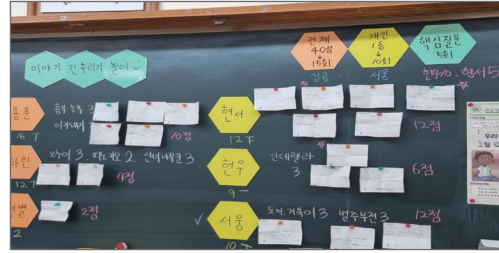


우리반 데일리 루틴(약속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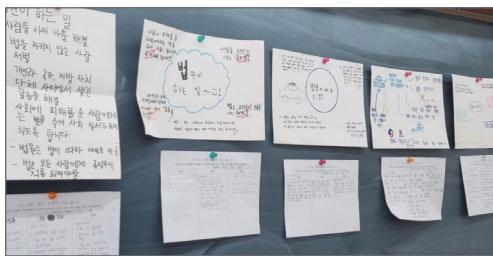
활발하게 의견을 공유하거나 서로 뭉치고 흩어지며 학습 내용을 확산하는 활동은 진행하기 어렵다는 제약 또한 따라왔습니다. 이러한 제약을 보완하며 학생들 간의 시너지를 잘 살려내기 위한 개인·짝·모둠·전체활동을 다양하게 구상하고 여러 과목에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포스트잇 이불덮기 놀이



이야기 간추리기 놀이



국회, 정부, 법원이 하는 일 조사 자료



학교 교지 표지 그림 콘테스트 결과물

국어

국어 교과 경우 교과서 포맷이 비슷한 과목이라 지루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국어교과는 다른 모든 교과와 도구가 되며 기초학력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교과이기에 지루함은 학력향상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어시간에는 게임을 통해 지문 내용에 집중할 동기를 부여하고, 전체 보상을 제공하며 상호 간의 이해를 독려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특히, 학습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이용한 게임을 활용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극하였고, 포스트잇을 활용한 학습자간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꾀하였습니다.

#질문사냥놀이 #포스트잇이불덮기놀이 #전체보상 #몰입유발 #협력강조

수학

하브루타 수업 방식을 차용하여 매 단원 도입시간에 이번 단원을 공부한 후 해결하고 싶은 질문들을 미리 만들도록 했습니다. 차시 학습을 마친 후 만들어둔 질문들 중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골라 해결 도장을 찍으며, 단원 학습 과정 내내 성취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질문 해결은 개인이 하도록 하여 개별 기초학력에 신경 쓰면서도, 한 질문을 모두가 해결해야 도장을 찍어줌으로써 전체 협동심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문 해결을 위해 자연스럽게 또래 교수가 이루어지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브루타 #질문만들기 #개인활동 #전체보상 #또래교수유도

사회

사회과 교수학습모형의 꽃은 전문가협동학습모형(직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명씩 짝을 지어 할당된 학습 내용을 탐구한 뒤, 돌아가며 탐구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국회, 법원, 정부가 하는 일을 조사할 때는 교과서와 스마트 패드를 자유롭게 활용하며 조사 자료를 제작했고, 이를 공유하며 자신이 조사하지 않은 기관이 하는 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탐구 내용 공유 후 빠진 부분이나 각 파트 핵심내용을 교사가 정리해주는 식으로 수업을 마무리했고,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대표적인 학습자 중심 수업 중 하나였다고 자신합니다.

#질문사냥놀이 #포스트잇이불뚝기놀이 #전체보상 #몰입유발 #협력강조

미술, 실과 등 예체능 교과

예체능 교과는 개개인의 관심도나 실력차이가 크게 드러나 몇몇 학생은 쉽게 흥미를 잃기 쉬운 과목입니다. 더욱이 배당 시간이 많지 않아 지속적으로 학습 내용을 이어 가르치기 보다, 차시마다 흥미로운 요소를 하나 삽입하여 단일차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몰입에는 경쟁이 효과적인 만큼 세 명씩 모둠을 지어 과제를 제공하고 빠르게 또는 완벽하게 해결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미술 같은 경우 협동 작품 제작 시 제한 시간안에 완성도를 점검하는 활동을 하거나, 실과에서 모둠원과 함께 절차적사고로 프로그래밍 한 후 대결하기 등의 예시가 있습니다.

#질문사냥놀이 #포스트잇이불뚝기놀이 #전체보상 #몰입유발 #협력강조

3. Develop: 잘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먼저다

2학기에 접어들어 우리 교실에 '온라인콘텐츠 활용 교과서'라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사회교과 '세계 기후와 그에 따른 삶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제작된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온라인 교과서 제작에 직접 참여하며 우리반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구상하고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실제 수업으로 풀어내기 전 여러 걱정이 앞섰습니다. '서책형 교과서 대신 테블릿을 이용해 순조롭게 수업이 진행될까? 패드라는 도구에 일시적인 몰입으로 교과 내용 습득에 오히려 방해가 되진 않을까? 프로젝트 수업을 마친 후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

위와 같은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교과서의 철저한 제작 및 점검, 짜임새있는 프로젝트 수업 차시 구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나라 조사하기



발표자료 제작하기




내가 선택한 나라 발표하기



주요학습계획				
교과 차시	단원	성취기준	학습 주제	활동 내용
사회 1/9 대면	1.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 화	[6사07-03] 세계 주요 기후의 분포와 특징을 파악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과의 관계를 탐색한다.	프로젝트 안내하기	-프로젝트 관련 교과와 프로젝트 주제 안내하기 -우리나라의 기후 떠올리기 -기후에 대해 알아보기 -기후와 날씨를 구분하고 위치나 지형에 따라 기후가 달라지는 이유 알아보기
사회 2/9 대면	1.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6사07-03] 세계 주요 기후의 분포와 특징을 파악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과의 관계를 탐색한다.	세계의 여러 기후 & 생활 모습 알아 보기	-세계 여러 기후의 특징 알아보기(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 대, 고산 기후) -각 기후의 특징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모습 알아보기
사회 3/9 대면	1.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6사07-03] 세계 주요 기후의 분포와 특징을 파악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과의 관계를 탐색한다.	세계의 여러 기후 & 생활 모습 알아 보기	-세계 여러 기후와 생활모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층 질문 해결하기 -기온과 강수량 그래프를 통해 기후의 특징 정리하기 -퀴즈 해결하며 세계 여러 기후와 생활모습 평가하기
사회 4-5/9 대면	1.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6사07-02] 여러 시각 및 공간 자료를 활용하여 세계 주요 대륙과 대양의 위치 및 범위, 대륙별 주요 나라의 위치와 영 토의 특징을 탐색한다. [6사07-03] 세계 주요 기후의 분포와 특징을 파악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후 환경 과 인간 생활과의 관계를 탐색한다.	세계 기후 와 그에 따른 생활 모습 조사 하기	-내가 가고 싶은 나라를 선택하여 위도와 경도, 속한 대륙과 대양 정리하기 -예시자료와 각종 사이트를 참고하여 내가 선택한 나라의 기후와 생활모습, 각종 특징 조사&정리하기 -내가 가고 싶은 나라를 선택하여 위도와 경도, 속한 대륙과 대양 정리하기 -예시자료와 각종 사이트를 참고하여 내가 선택한 나라의 기후와 생활모습, 각종 특징 조사&정리하기

<p>사회 & 미술</p> <p>6-7/9</p> <p>대면</p>	<p>1.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p>	<p>[6사07-03] 세계 주요 기후의 분포와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과의 관계를 탐색한다.</p> <p>[6미01-04]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p>	<p>세계 기후와 그에 따른 생활모습 발표자료 제작하기</p>	<p>-지난 시간 정리한 내가 선택한 나라의 기후와 생활모습, 특징에 대한 조사자료 살펴보기</p> <p>-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가 선택한 나라 소개자료 제작하기</p>
<p>사회 & 국어 & 도덕</p> <p>8-9/9</p> <p>대면</p>	<p>1.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p>	<p>[6국01-05]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p> <p>[6사07-03] 세계 주요 기후의 분포와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과의 관계를 탐색한다.</p> <p>[6도03-04] 세계화 시대에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을 토론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p> <p>[6국01-05]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p> <p>[6사07-03] 세계 주요 기후의 분포와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과의 관계를 탐색한다.</p> <p>[6도03-04] 세계화 시대에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을 토론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p>	<p>세계 기후와 그에 따른 생활모습 존중하는 태도기르기</p>	<p>-내가 선택한 나라의 기후와 생활모습, 특징이 담긴 자료 발표하기</p> <p>-나라별 특별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영상 시청하고 퀴즈를 통해 내용 정리하기</p> <p>-세계 여러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 다짐하기</p> <p>-내가 선택한 나라의 기후와 생활모습, 특징이 담긴 자료 발표하기</p> <p>-나라별 특별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영상 시청하고 퀴즈를 통해 내용 정리하기</p> <p>-세계 여러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 다짐하기</p>

3. 마치며

10월 되어 6학년 학생들과 함께 완성한 합동 가랜드의 문구는 이것이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타오른다.’ 겨울 전 단풍 물든 나무를 빗댄 표현으로 제게 꼭 맞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적은 경력의 아는 것이 많지 않은 제가 1년 여간 이것 저것 많은 것들을 담아냈습니다. 이 중 버려야 할 것들도 섞여있겠지요. 앞으로 더 연구하고 성장하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것들만 뜰채로 조심스럽게 건져 예쁘게 선물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보며, 저의 교실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정적 문맹 시대, 공감 콕콕(Empathy nudge) 감정 수업으로 성장하는 우리들

인천효성남초등학교 교사 김현미

1. 우리 교실 들여다보기

“선생님, ○○이가 자꾸 놀려요.”
“놀린 게 아니고 장난이에요. 장난인데 괴롭힌다고 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랜 원격 학습을 이어오다가 본격적인 매일 등교 수업이 진행되었던 학기초 우리 학급의 모습이였다. 평화로운 교실을 위해서 4월에 행감바(나 전달법)를 지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습관화하기를 바랬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교실은 다툼이 이어지고 있었다.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함께 이야기 나눴던 행감바와 인사약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 아이들은 앞게시판의 게시물을 힐끔힐끔 보면서 자연스럽게 못한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과를 하는 아이 또한 부자연스러운 대화로 사과를 이어갔다.

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친구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도 감정적 문맹이 되어 가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었고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공감을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감을 이끌기 위한 감정표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2. 감정적 문맹 시대, 수업에 대한 고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요즘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각박해지는 현실과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심각한 우울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불안 장애'나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오랜 원격 수업의 후유증인 공감의 부재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사회와 학교 현장에서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학교폭력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러한 학교와 사회에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자 하는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공감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권수영 지음, 샘터, 2022〉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감정을 경험하고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한다. 감정을 단순히 ‘좋다’, ‘화난다’, ‘짜증난다’ 등의 몇 안되는 감정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감정은 너무나도 복잡한 것이다. 감정을 느끼는 주체인 ‘나’ 자신이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아이들은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신남, 즐거움, 행복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면서 삶의 활력을 얻고 슬픔, 화,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며 고난과 역경을 해결해나갈 힘을 얻는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친구들과 나누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원만한 또래관계를 맺는 데 중요하다. 슬픔이나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억압하거나 부적절하게 표출하면서 사회적 부적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공감 콕콕(Empathy Nudge) 감정 수업으로 성장하자



3. 감정 수업으로 찾는 해답!!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감정적 문맹 시대에서 서로와의 관계를 좀 더 촘촘히 다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감 능력이다. 공감이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감응하는 행위이지만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도 잘 이해할 수 없다.

권수영 교수의 『공감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에서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불러주기를 해야 한다고 한다. 마치 친구를 사귀고 지내는 일처럼 감정들과도 친밀하게 지내야 우리의 감정 세계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급에서는 자신과 상대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는 진정한 공감을 위해 감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감정 수업을 진행하였다.

4. 공감을 이끄는 감정 수업 전략 수립

공감적 배움과 감정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배움의 약속을 학급에 게시하여 소통과 협력의 기초를 중점 지도하였다.

친구는 나의 또 다른 선생님



배려하는 발표

- 똑똑한 목소리로 말하기
- 친구의 눈을 보며 말하기
- 적극적으로 말하기

존중하는 경청

- 발표하는 친구 바라보기
- 귀담아 듣기
- 리액션으로 공감하기

협력하는 배움

- 친구의 배움 기다려주기
- 모르는 것 질문하고 가르쳐 주기
- 자기 삶에 적용하기

학급이 평화로운 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학급에 게시하고 꾸준한 연습이 되도록 하였다.



무드 미터

- 감정을 '쾌적한'과 '활기'를 기준으로 한 4분면 좌표로 60가지 감정 단어를 구성하여 감정에 이름 붙이기



평화 대화법

- 마음을 표현할 때 먹는 '행감바'와 같음을 해결하기 위해 먹는 '인사약'의 평화적 대화 생활화하기

5. 감정 프로젝트

갈등 상황마다 교사가 개입하여 중재하는 것은 학생의 성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접근법은 아니다. 무드 미터(Mood Meter)를 활용한 공감콧콧 감정 프로젝트 수업으로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무드 미터는 예일대학교 감성 지능 센터의 센터장 마크 브래킷이 개발한 감정표현 도구로 보스턴 칼리지 대학교의 제임스 러셀(James Russell)교수가 개발한 원형 감정 모형을 기초로 설계된 도구로 매일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고 측정하고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이 경험하는 다채로운 감정을 '쾌적한'(Pleasant)과 '활기'(Energy)라는 두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4분면 좌표에서 빨강, 노랑, 초록, 파랑의 색을 명도와 채도에 구분하여 100가지 색으로 구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감정을 세분화하고 있다. 마크 브렛킷은 “기분을 정확히 세분화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초등학교의 수준에 알맞은 단어로 수정하여 총 60가지의 감정 단어를 사용하여 감정 수업을 진행하였다.



공감 곡곡 감정 수업 프로그램

교과	차시	활동주제	활동 내용
창체	1~2	감정 인식하기	감정이란? ·감정 수업 프로젝트 구성하기 ·감정표현의 필요성 느끼기 ·그림책으로 감정 단어 알아보기
도덕	3~4		감정 분류하기 ·감정을 분류하고 나의 감정 알아보기 ·무드 미터 활용 무드 트레이 작성하기
미술	5~6	감정 인식하기	나의 감정 이해하기 ·감정카드 만들기 ·무드미터 만들기
국어	7~8		다양한 감정 나누기 ·공감하며 듣기 위한 경청 연습하기 ·적극적 경청, 경청 놀이하기
	9~10	감정 인식하기	나의 감정 알아차리기 ·갈등 해결하는 대화 알아보기 ·'나 전달법'으로 나의 감정 전달하기
	11~12		타인의 감정 알아차리기 ·친구의 감정 소개하기 ·행감바, 인사약으로 대화하기
	13~14	감정 인식하기	자기 감정 표현하기 ·부정적 감정 다루기 - '화' 다루기 ·마음 신호등, 화 조절 연습하기
	15~16		타인 감정 느끼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올바른 감정표현 방법 익히기
도덕	17~18	감정 인식하기	부정적 감정 조절하기 ·갈등을 조절하는 사회적 기술 익히기 ·또래 중재자와 갈등 해결 연습하기
국어	19~20		감정표현 적용하기 ·이야기에서 올바른 대화 방법 익히기 ·프로젝트 마무리하기

6. 공감을 유도하는 감정 수업 이야기



학생들이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여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5단계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학생들이 공감이 습관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1단계 감정 인식하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신체 변화와 에너지, 타인의 표정, 몸짓, 목소리 변화를 알아차리면서 어떤 감정이 생겨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단계이다. 창체, 도덕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감정과 감정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은 소중하고 긍정적인 감정임을 지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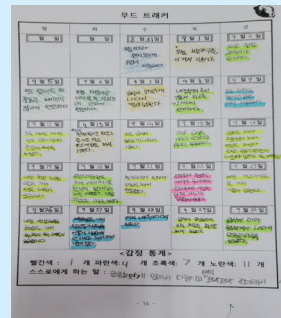
#질문사냥놀이 #포스트잇이불뚝기놀이 #전체보상 #몰입유발 #협력강조



<감정 그림책 활용>

2단계 감정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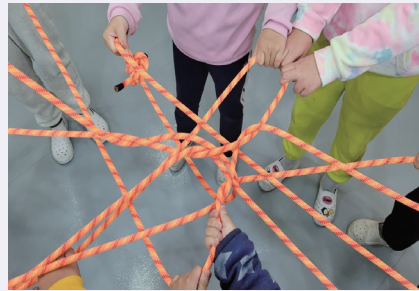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잘 예측하기 위한 단계로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여 그 감정이 생각과 행동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는 단계이다. 미술 교과시간을 활용하여 감정 카드와 무드 미터를 만들어 게시하였다. 친구들과 협력하여 만든 감정 카드를 통해 감정 단어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국어 교과 시간에 공감의 기본이 되는 경청의 방법을 연습하였다. 또한, 감정 파악을 위한 무드 트레이커를 작성하였다.



<감정 이해 활동>

3단계 감정에 이름붙이기

자신의 감정적 경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용어를 찾으면서 감정을 명료화하는 단계이다. 행감바(나 전달법)로 나의 감정을 전달하고 타인의 감정 이해를 위해 인사약으로 사과하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매듭풀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인간관계에서 얽힌 감정을 풀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과 협력으로 감정의 응어리를 풀 수 있음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느낀 감정을 이야기 나누었다.



〈협력하여 매듭 풀기〉

4단계 감정 표현하기

감정에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현재 상황, 전체적인 맥락에 맞춰 감정 처리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다양한 감정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아이들도 있지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꼭꼭 눌러 담아서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어 시간을 활용하여 부정적인 감정(화)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고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이야기 나누었다.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사실과 감정을 말하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하였다.

5단계 감정 조절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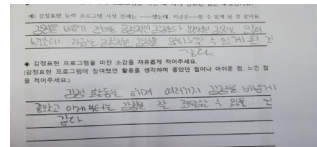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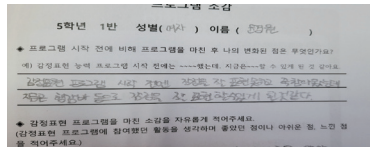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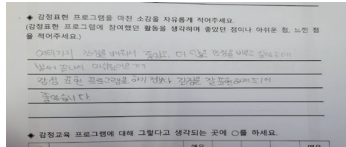
감정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고 통제하여, 바람직한 방식으로 감정표현을 수정하는 단계이다. 부정적인 감정 화가 날 때는 막상 흥분하여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럴 때 교사의 개입도 중요하지만 또래 중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교사의 시각 아닌 친구들의 시선으로 양쪽의 입장을 고려하여 문제해결을 하는 또래 중재자의 역할도 효과적이었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는 이야기를 읽고 함께 올바른 대화 방법을 이야기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소감을 이야기 나누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였다.

7. 감정 수업으로 성장하는 우리들

성장하는 아이들


프로그램의 각 단계별 마무리 활동에서 아이들의 소감을 작성하였다. 활동별 소감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단계	소감 내용
감정 인식하기	·친구들과 감정척에 나오는 감정을 살펴 보면서 감정 단어를 분류하는 활동이 재미있었고 다음에 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정 이해하기	·무드 미터로 감정을 분류하고 무드 트래커에 나의 감정을 쓰는 활동이 간단하지만 매일 감정을 돌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감정에 이름 붙이기	·매듭 풀기 놀이를 통해서 친구와 소통하고 협력하였고 서로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다. ·행감바와 인사약을 통해서 친구의 감정을 이해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감정 표현하기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화가 나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다. ·내가 화가 날 때 하는 행동이 바람직한 감정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감정 조절하기	·또래 중재자와 함께 선생님이 없어도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장하는 아이들

갈등 상황에서 교사 개입의 상황 해결은 관계에서의 불편함을 말끔히 해결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에서 타인을 이해해서 나오는 사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꾸준히 실천하는 모습을 가장 강조하였다. 특히, 상대방의 공격성에 대응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현명한 대화법인 행감바와 인사약만 제대로 실천하더라도 학습의 평화는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아이들과 함께 교사인 나 자신부터 아이들에게 나의 감정을 전달할 때 나 전달법을 사용하여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하였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3월의 뽀족뽀족 모란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던 아이들의 삶 속에 어느새 공감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낀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며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협력으로 함께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학급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만의 색깔로 만든 무지개빛 수업 이야기

인천인동초등학교 교사 박지혜

1. 우리 사이 좋은 사이 사이반!!을 만나다.

올해 학급운영을 계획하면서 공을 들였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반의 브랜드화였다. 거창하지만 사실 우리 반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해줄, 그리고 우리 반의 색깔을 보여줄 마음이 저절로 생기도록 해줄 무언가가 없을까 고민에서부터 출발했다. 이전 몇 번의 시도가 그다지 만족스럽진 않았기에 올 해는 좀 더 완성도 있는 학급운영과 내실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며칠을 고민 끝에 정했다.

‘우리 사이 좋은 사이, 사이반’이라는 슬로건 하에 나는 ‘사이반’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했다. 4학년 2반을 부르기에 좋은 우리 반만의 이름으로 재탄생 시키고 아이들도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더 정이 가고 마음에 드는 이름이었다. 반 이름을 활용해 애칭을 만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오일반(5학년 1 반), 투투반(2학년 2반) 등 친근감을 주는 애칭을 만들어 부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적용하려는 의도보다는 ‘선생님은 여러분이 예뻐서 이렇게 부를래요’ 정도의 의미였다. 물론 그러한 시도를 통해 때로는 수업이나 학급운영에 탄력을 받기도 했지만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시작부터 많이 달랐다. 교사 또는 학생이 학급을 부르는 애칭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 사이 좋은 사이’라는 말에는 교사로서 학급운영이나 수업을 통해 친구사랑, 학교폭력예방 등을 실천하고 아이들끼리 서로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담겨있었다.

다음으로 한 작업은 학급 내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로고 만들기이다.

마침 연수받은 무료앱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 을 탐색하고 여러 번의 수정 끝에 단순하지만 따스한 느낌의 로고를 완성했고 이는 일 년 내내 다양한 학급 활동과 수업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누가 봐도 우리 반, 우리 선생님이란 마음이 드는지 아이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새로운 알림내용이나 급한 연락에도 확인 및 응답속도가 이전보다 향상된 걸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인 준비를 하면서 두근대는 마음으로 사이 반을 만났고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사이는 좋은 사이가 되어 가고 있다.



2. 사이반의 색깔을 만들어가기 위해 고민하다.

올해는 좀 나아질까 기대했던 것이 무색하게 코로나로 인해 새학년 시작부터 온라인수업을 실시하게 되어 수업에 대한 고민이 컸다.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다양한 색깔을 이끌어 내려면 교사와 학생사이, 학생과 학생 사이의 래포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자료와 교사의 수업기술이 있다고 해도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의견을 나누거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그것들이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첫 날부터 하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내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우선 나의 컴퓨터 화면에 작게 보이는 빼곡한 아이들, 그리고 시시때때로 인터넷 문제로 원활하지 않던 수업시간, 아이들 각자 사용하는 기기의 한계(특히 화면크기) 때문이다. 그나마 위로가 됐던 건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 처음이 아니라 교실 기기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아이들도 익숙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반은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매일 아침 ‘한줄 이야기’를 했다. 그날의 주제를 정해 돌아가면서 자기소개와 한줄 말하기를 덧붙이는 활동인데 내용의 거창함보다는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지는 것이 목적이기에 주제는 아주 쉬운 것으로 선정했다. ‘저는 30번 박지혜입니다. 저는 노란색을 좋아합니다.’와 같이 누구나 걱정 없이 말할 수 있도록 말이다. 온라인수업 전 편안한 음악과 함께 주제를 미리 화면에 띄워주고 새 학년 아침 열기를 했다. 덕분에 학교에서의 쉬는 시간이 없어 친교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들끼리 서로의 이름도 익히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볼 수 있었고 발표 연습도 되었다.

이렇게 직접 만나지 않았기에 수업을 준비하고 해나가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다양한 방법을 수업에 적용해서 온라인수업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 했고 사이반의 색깔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사이반의 색깔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는 교사가 하는 수업에서 자료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 한다는 뜻도 있지만 아이들 각자의 성격과 흥미 등이 다른 사이반 24명 아이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수업에 참여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업시간에 시도해 보고 있다.

3. 사이반의 다양한 색깔을 보여줄 수업을 함께 만들어가다.

올해 수업은 언제나 그렇듯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활동을 재구성 하고 있다. 그 중 새롭게 시도해 봤거나 사이반의 슬로건 ‘우리 사이 좋은 사이, 사이반’에 집중했던 수업 활동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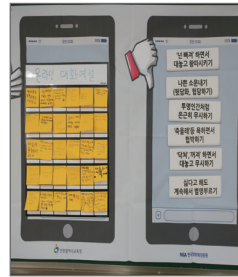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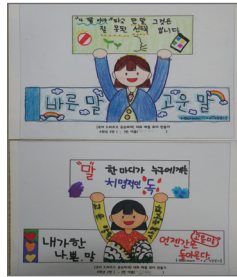
가. 친구사랑 수업

-친구사랑 수업 활동은 다양한 시간에 접목해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 중 2가지를 소개하면 국어시간에 했던 대화예절 표어 만들고 캠페인 활동하기, 온라인 대화 예절

알아보기(사이버폭력예방)가 있다. 이중 온라인 대화 예절 알아보기는 인천시교육청과 사이버진흥원에서 개발한 사이버폭력예방교구를 일부 활용했다. 교과서의 활동을 재구성하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대화예절 표어 만들고 캠페인활동 (국어 4-2-3.바르고 공손하게)



온라인 대화 예절 알아보기 (국어 4-2-3.바르고 공손하게)



나. 우정을 키우고 행복한 사이반을 만들기 위한 수업

-2학기 개학식날 창체 수업으로 문장을 공개하지 않은 채 한 사람씩 글자를 받아 꾸민 후 힘을 모아 문장을 만드는 활동을 했다. 친구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문구를 함께 완성한 후 이야기를 나누면서 2학기를 어떻게 지낼지 다짐했으며 미니 가랜드를 만들어 사랑이 넘치는 반을 만들기 위한 자극이 되도록 학급환경을 구성했다.



2학기 개학식 활동-협동해서 비밀글자 맞추고 가랜드 만들기 (창체-학교폭력예방교육)

다. 한글날, 독도의 날 등 국경일 계기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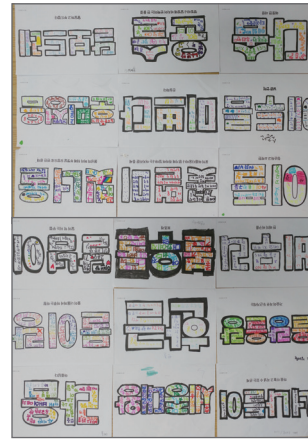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다양한 활동을 국어, 창체, 동아리(창의미술부) 수업으로 재구성해 실시했다. 10월의 경우 대표적인 국경일 4가지의 기본의미를 알아보는 책을 만든 후 추가 활동을 했다.



10월 국경일책



독도 반전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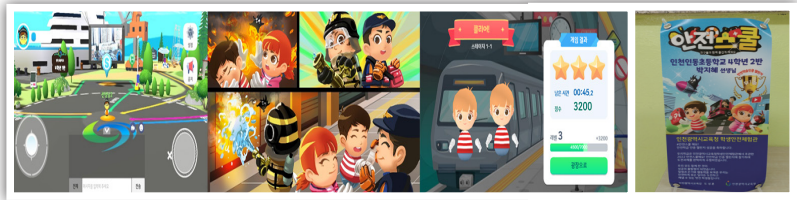


순우리말을 언어예절로 채워보기

한글날에는 순우리말을 알아보고 순우리말 속에 언어예절의 실천방법을 써넣으면서 고운 심성을 길렀으며 독도의 날에는 1학기 독도수업에 이어 이야기 나누는 후 반전책 만들기 활동을 했다. 독도수업의 경우 인천e학습터와 연계해 1학기에 사이버학급을 운영하여 심화활동이 이루어진 아이들이 많아 이야기거리가 더욱 풍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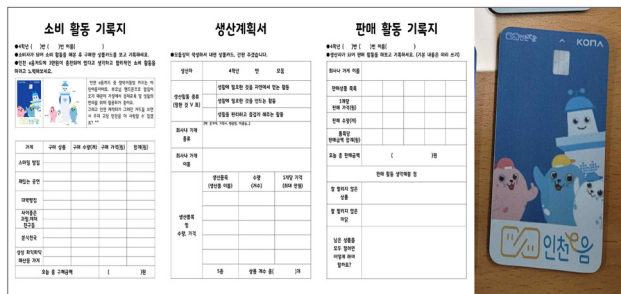
라. 인천 학생안전체험관 안전스쿨애플 활용한 안전학급 인증 챌린지

-1학기에 인천 학생안전체험관에서 실시한 안전학급 인증 챌린지에 참여해 메타버스의 개념을 익히고 체험하며 도전과제를 수행했다. 재난안전교육 시간을 활용해 지하철 안전, 선박 안전 등을 익힌 후 친구들과 협동해 과제를 수행하는 활동을 했으며 성취감과 함께 인천 교육감님의 격려 말씀이 담긴 인증배너와 함께 상품으로 온 간식을 나눠 먹으며 더욱 즐겁고 행복한 학급을 만들 수 있었다.



인천학생안전체험관 안전스쿨앱 활용

안전학급 인증배너



인천 e음카드와 함께 하는 생산과 소비 경제활동 체험 (사회 4-2-1. 경제 활동과 선택)

마. 인천 e음카드와 함께 하는 생산과 소비 경제활동 체험 수업

-생산과 소비 경제활동을 체험하기 위한 시장놀이가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데 인천e음카드 정책과 연계해 지역화폐에 대해 이해하고 인천사랑의 마음을 키우며 생산과 소비활동을 체험해보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저학년 시장놀이와의 차별화를 이루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낼 수업이 되었다.

4. 놀랄 만큼 성장하고 있는 사이반을 위한 남은 수업을 생각하다.

달력을 보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사이반 생활이 두달 반 정도 남아있었다. 남은 수업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항상 머릿속에 가득하고 수시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도 한다. 또 좋은 동학년 선생님들과 항상 수업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풍성한 수업이 되고 있어서 남은 두달 반의 수업 도 설레고 기대된다. 남은 기간 동안에는 수업 시간에 좀더 다양한 것들을 활용하려고 준비 중이다. 안전교육 시간에는 인천 학생안전체험관에서 운영하는 안전스쿨앱 2차 학급인증 챌린지 참여를 통해 아이들과 메타버스에서 재미있게 안전수업할 생각이고, 진로교육 시간에는 인천 사이버진로교육원에서 개발 중인 마이퓨처컴퍼니 프로그램에 참여해 학교에서 실시한 진로검사와 연계해 수업할 예정이다.

마이퓨처컴퍼니 프로그램의 경우 앱상에서 체험을 원하는 회사를 선택 후 원하는 직무와 소개 영상을 확인해서 실제 직무 역할 체험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좀더 실감나게 얻을 수 있으며 개인별 기기를 사용해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춰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5. 사이반의 성장이 곧 교사인 나의 성장이 된다.

최근 수업시간에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다가 문득 ‘사이반이 마무리 되고 아이들과 헤어질 때 참 아쉬울 것 같다...’란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 중에서도 ‘내년에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4학년이 끝날 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선생님 사랑해요’ 같이 조금은 간질간질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걸 보면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경력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교사로서 올해는 아이들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교사인 나도 그 어떤 해보다 많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수업에는 자료와 발문 같이 나의 기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는지, 아이들끼리 소통하면서 수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많이 생각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나만의 수업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한해가 되고 있다.

거기에 더불어 교사로서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수를 듣고 인천시교육청의 여러 사업에 참여하면서 수업에 다양하게 접목해보니 수업이 더욱 새롭고 알차게 진행되는 것 같다.

이를 통해 교사로서 수업 준비에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고 여러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인천시교육청의 다양한 사업에 시민이자 교사로서 자부심이 느껴진다.

완성된 수업, 훌륭한 수업은 어렵지만 이렇게 평범하게 수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나누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내겐 소중한 시간이다. 사이반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겨서 너무 반갑고 우리 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수업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누군가에게는 다양한 수업내용을 소개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마이퓨처컴퍼니 프로그램
(운영지원단 위촉되어 참여예정)

국가대표 1학년과 국가대표 선생님

인천한누리학교 교사 석경원

1. 인천한누리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에브리원, 니먼 하오, 썬 짜오, 즈드라스부이체, 그리고 왓살라말라이쿰. 아, ‘밍글라바’가 빠졌네. 미안!” 우리 반에는 현재 15명의 국가대표가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반 공립학교에서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위탁교육을 받는 공립형 대안학교인 인천한누리학교. 이 학교의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는 저마다 다양각색의 꿈을 꾸는 학생들이 저 멀리서 통학버스를 타고 신나게 떠들며 등교합니다.



아직 한국어가 서투른 학생들을 위해, 아침에 한 마디라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인사를 하자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여러 나라 인사말이, 점점 늘어나서 가끔 빼먹는 언어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 “안녕하세요.”가 한국어 인사인 것을 아는 친구들이, 그래도 자기 나라 인사가 빠지면 섭섭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리비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오늘 깜빡한 인사말 ‘밍글라바’는 미안마어입니다. 8개국에서 온 15명의 학생들은 오늘도 우리 교실과 우리 학교 곳곳에서 저마다의 속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천한누리학교는 현재 21개국에서 온 150명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적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다양한 나이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고, 거주지도 인천뿐 아니라 서울, 경기, 충청권에 살면서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인천 내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는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총 2대의 통학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은 그런 곳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학교가 바로 인천한누리학교입니다. 심지어 공립학교인데도 사립학교나 외국인학교로 오해를 받기도 해서, 저 또한 교육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는 어떻게 들어갔냐, 공무원을 왜 그만두었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인천한누리학교는 인천 관내 우선전보를 통해 교사가 전입하며, 초등교사의 경우 4년 만기 후 다시 일반 공립학교로 진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재직 중이던 학교에서 4년 만기를 채우고 내년에 어떤 학교에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인천한누리학교 우선 전보 공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면서 알게 된 학교였고 언젠가 한 번은 근무해보고 싶다고 막연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학교였는데 친한 교사 친구가 “너에게 딱 맞는 학교다.”고 추천하여 고민하다가 지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재외국민 한국국제학교 파견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끊임없는 변이를 거듭하며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선 국제학교와 비슷한 느낌의 인천한누리학교에서 근무해보면 어떨까 생각했던 것도 지원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지원서 제출 및 면접을 통해 올해 3월부터 인천한누리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이제 1년 차인 제가 느낀 인천한누리학교는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았고, 동시에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2. 어서 와, 1학년은 처음이지?

이 학교에 온 지는 이제 겨우 1년 차지만, 나를 교육경력 9년 차고 세 번째 학교라는 생각에 스스로가 어느 정도 신규교사 티는 벗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월부터 여러 선생님께 묻고 또 묻고 다시 또 물어보며 적응해야 했습니다. 1학년도 처음이고, 통학버스 지원 업무도 처음인데다 초등교사의 수가





8명인, 섬인 듯 섬 아닌 섬 같은 이 학교와 썸을 타며 적응한 지 한 학기가 지나고, 새로 바뀐 학생들과 또 썸을 타야 했던 2학기 초. 한누리학교는 위탁 체제의 학교이기 때문에 1학기에 왔던 학생들이 7월 여름방학 겸 수료식을 마치고 원적 학교로 복귀하고, 2학기에 또 새로운 학생들이 와서 학급 구성원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한국어 실력이 일취월장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학생이 있는 한편, 아직 더 배우고 적응할 필요가 있어서 위탁을 연장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초등 1학년의 경우, 3월 첫 주에 시작할 때는 단 두 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여 여덟 명의 학생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였는데, 그중 다섯 명의 학생이 과정을 마치고 원적 학교로 돌아갔고 세 학생은 2학기에도 계속 남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2학기가 되어 매주 한두 명씩 새로 오더니, 현재는 총 열다섯 명의 학생이 교실을 가득 채우고 삼십 개의 눈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교육경력 가운데 저는 작년까지 1학년 담임교사를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1학년은 경력 많으신 선배 선생님들께서 갓 유치원을 졸업하고 입학한 아이들을 초등학교 학생답게 키워내시고 2학년으로 올려보내시는, 숭고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학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정말 큰 인내심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학년이라는 생각이 추가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1학년을 오래 해 오신 선배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여러 난관에 부딪혔을 때 자주 했던 생각은, ‘이 학생들이 1학년이어서 그럴까, 아니면 외국인이어서 그럴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1학년도 처음이고, 외국 국적의 학생들로만 구성된 학급도 처음인지라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학생들과 갈등과 화해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아직 열 살도 되지 않았는데, 30대인 제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과 싸우냐고 물으신다면... 일반 학교에서 겪는 갈등과 비슷하기도, 다르기도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알려진 규칙임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 규칙을 어기는 사소한 행동부터, 말이 안 통하니 주먹의 대화(?)를 하려는 몇몇 장난꾸러기들까지. 쉬는 시간이 끝났으니 이제 놀던 장난감을 정리하고 자리에 앉자고 하면 더 하겠다고 떼를 쓰고 울거나 장난감을 집어던지고, 거기에 맞아 손등이 파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상처가 나면 금방 아물지도 않는데!) 초등학생들이 복도나 계단에서 뛰는 것은 국적을 초월하여 발달 단계상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저학년 학생들이 똥, 오줌, 방귀 이야기에 자지러질 듯 웃고 깔깔대는 것 역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류 유전자에 내재한 인간의 본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 교육수요자를 만족시켜주려 노력하는 교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나, 너, 소, 수, 비, 버스, 선생님, 사랑해요!

1학년이라고, 한국어를 모른다고, 마냥 색칠 공부만 할 수는 없는 노릇. 한누리학교에서 근무하시던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쓱쓱자라는 한국어’ 단어학습장과 더불어, 여러 학습자료를 편집하고 인쇄해서 학생들과 꾸준히 학습하고 있습니다. 1학기 때는 환경보호 프로젝트 학습도 진행했고, 최근에는 문화다양성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과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고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진 생각을 말과 글자로, 그림으로, 행동으로 표현하고 서로 나누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칭찬에 인색한 저와는 달리 다른 친구의 작품을 보고 눈을 크게 뜨고 엄지를 척 내밀 줄 알며, 친구가 더듬더듬 천천히 발표하는 것을 재촉하지 않고 경청하며 크게 박수치는 학생들을 보며 저보다 나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배울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해야 앞서갈 수 있고 위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경쟁 사회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러한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을 칭찬해왔던 저와는 달리, 우리 반 친구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친구를 인정하고 사랑할 줄 아는 친구들입니다. 가끔 머리를 멍하게 만드는 이 친구들 덕분에, 저 또한 그렇게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도안에 색칠을 꼼꼼히 잘한 학생을 칭찬하며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작품을 걷을 때 하얀 부분을 많이 남긴 학생에게 “왜 색칠을 하다가 말았니?”하고 물었을 때,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얀색으로 그 부분을 두고, 내가 이걸 보고 눈을 감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다른 색으로 칠한 것을 떠올리고 싶다.” 저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를 나무라려다, 하교 시간이 다 되어서 우선 집에 보내고 지저분해진 교실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작품을 천천히 다시 보았습니다. 나비의 날개 부분과 꽃잎 부분에 똑같은 색을 빨리 칠해둔 다른 친구들의 작품과 달리, 눈을 감고 이 부분에 어떤 색을 칠하면 좋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 활동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1학년 학생의 마음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내가 예술가에게 시간을 너무 짧게 주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작품을 전시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접기 수업을 하면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도 한 명 한 명 앞으로 나와 결국 내가 열다섯 번 접기를 하게 만들어 손을 아프게 하는 1학년 학생들. 완성된

한누리  한국어 교			
날말/어휘			
번호	그림	날 말	뜻
1		나	
2		너	
3		소	
4		수	
5		비	
6		버스	



종이접기를 받아 들고 세상 환하게 웃으며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를 외치는 1학년 학생들. 복도에서 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 멀리서 나를 보면 양팔을 들고 달려와 내 허리가 꺾이도록 꼭 안기는 1학년 학생들. 무섭게 화내고 울려도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가와서 치근덕대는 1학년 학생들. 가끔 자기 나라 내게 말을 가르쳐주며 “나 선생님, 너 학생”을 말하는 1학년 학생들.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표정과 몸짓으로 끊임없이 내게 가르쳐 주는 우리 1학년 학생들. 그리하여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기회를 주는 1학년 친구들.

한창 장래희망을 이야기하던 중,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인 우리 반 학생이 제게 “선생님은 국가대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저는 그 이유를 물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길, “나 한국 와서 처음 선생님 만났고 다른 선생님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국 대표예요.”라고 말해줘서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이 학생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한국인’하면 나를 떠올리겠구나.’ 학생들을 대할 때 말과 행동에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찾아와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우리 국가대표들에게 매일매일 지나치게 과분한 사랑을 받는 저는, 국가대표 선생님입니다. 



교사, 수업을 통해 성장을 말하다!

극한 전담, 음악 전담으로 살아남기

인천작전초등학교 교사 신주은

1. 음악 수업에 대한 고민

2015년 9월, 첫 발령 때 음악 전담을 하게 되었다. 6학년 음악 수업이라 수업 준비에 더 긴장을 했었다. 가창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노래를 잘 부를까?, 감상 수업을 하게 되면 지루해하지는 않을까?, 창작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잘 만들 수 있을까? 등등 하루하루를 걱정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초등학생들과 수업을 하기에는 일반적인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계속 유지시켜야 하고, 동시에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도 다루어주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음악을 싫어하는 친구들을 위해 다양한 놀이와 신체활동을 준비해야 하며, 시청각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수업 사례를 살펴 보고, 음악과 관련된 연수를 들어보고 항상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다. 아직 노력형으로 진행중이지만 조금이나마 음악 수업을 통해 성장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 음악 수업을 통한 성장

다양한 교과와 함께하는 음악 수업

담임선생님이 직접 하는 음악 수업은 다양한 교과와 연계하여 수업 운영을 하기에 훨씬 유리하다. 대취타 음악을 배울 때면 미술 시간에 대취타 의상을 한번 꾸며보고, 체육 시간에 대취타에 맞춰서 행진을 하는 활동 등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나라의 놀이 중 필리핀 민요 꽃은 지고를 부를 때면 체육 시간의 표현 활동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요콩 내콩 노래를 배울 때면 과학 시간의 식물의 한 살이랑 연계해서 수업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 2차시 수업을 하는 음악 전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그래도 보다 풍부한 수업을 위해서라면 다른 교과와의 연계 수업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남생야 놀아라, 개고리 개골청 수업이다. 강강술래와의 연계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해보는 활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음악 수업이 항상 교실에서만 이루어진다는 편견을 빼고, 운동장에서도 음악 수업을 할 수 있었다.

다양한 놀이와 함께하는 음악 수업

음악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난감할 때가 한차시 동안 노래를 부르도록 되어 있는 수업이다. 물론 발성부터 연습하고 2마디씩 따라 부르기, 릴레이 부르기 등을 한다면 한차시의 수업도 완성되겠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면 '노래만 부르다가 끝났다!'라는 아쉬움이 종종 남긴했다. 그래서 가창 영역의 수업 또한 다양한 놀이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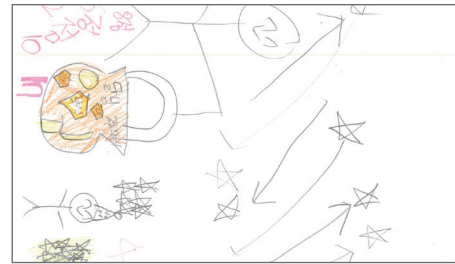
1) 도입 활동 - 듀플릭 활동

강강술래처럼 가사가 반복되는 노래보다는, 아름다운 노랫말이 돋보이는 동요에 적용하면 좋은 활동이다. 먼저 노래를 듣고 가사의 내용대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제시하는 예시를 보면서 각자 점수를 계산해본다. 달님 주머니라는

노래를 배울 때, 주머니에 보름달이 그려져 있으면 2점, 아쉽게도 초승달이 그려져 있으면 1점, 별은 개수대로 1점씩 추가 등 점수를 다양하게 구분해서 아이들과 활동을 한다. 아이들은 각자의 점수가 궁금하겠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가사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



듀플릭 활동의 예



듀플릭 활동 학생 작품

2) 전개 활동 - 음표 빼고 노래 부르기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음표 빼고 노래 부르기 활동을 꼭 함께 진행한다. 자칫 밋밋해질 수 있는 활동이지만, 각 음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떤 음표가 빠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있게 노래를 주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정리 활동 - 셴여림 X맨 게임

셴여림을 배운 뒤에, 피아노, 포르테 등 음악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해도 되지만, 일상적인 말로도 활동 설명이 가능하다. 술래를 한 명 정하고, 나머지 학생들 중에서 X맨을 한 명 정한다. 오늘 배운 노래를 부르면서 술래는 X맨을 찾아야 하는 단순한 게임이다. 하지만 술래가 X맨에 가까이 가면 점점 세게 노래를 부르며, 술래가 X맨에 멀어질 때면 점점 여리게 노래를 부른다. 가끔은 X맨이 긴장하여 술래가 가까이 오면 노래를 부르지 않아 눈치 빠른 술래가 바로 X맨을 찾기도 해서 당황하기도 한다. 모든 게임이 한 가지 버전만 있으면 금방 식상해질 수 있으니, X맨을 2명, 3명까지 늘려가면서 활동을 할 수도 있다.

3. 코로나19와 함께한 음악 수업

전례없는 코로나19와 함께한 원격수업으로 인해 많은 선생님들이 이중의 수업 준비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실시간 화상 수업은 평소 수업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소그룹 모임 등을 통해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리코더 수업도 할 수 있어서 새롭고 짜릿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가장 고민은 업로드할 영상을 녹화하는 것이었다. 사실 40분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에도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이나 모둠 활동 등을 함께 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집중력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생각을 했던 방법이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다. 4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기에 각 반별로 영상을 다르게 만들 수는 없었지만, 이벤트성 느낌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매 영상마다 다르게 불러주었다. “자, 이번에는 우리 2반의 정국이가 한번 대답해볼까요? (3초 쉬고) 그렇죠! 정국이가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4반에 있는 남준이가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3초 쉬고) 오~ 선생님도 남준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통했네요!”와 같이 혼자 아이들의 이름을 열심히 불러주었다. 물론 혼자 하는 연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민망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원격 수업 뒤에 이어지는 등교 수업때만 되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었다.

“선생님~ 이번에는 저도 이름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 뒤로도 4학년 전체 명렬표를 꺼내놓고 한명씩 체크하면서 영상을 계속 녹화를 하였다. 어느 순간 집중력이 떨어진 아이들에게는 갑자기 선생님이 등장하여 아이들에게 또 다른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기도 하였다.

장구의 구름		
기호	구름	연주방법
⊖	덩	왼손 바닥으로 북편, 오른손에 채를 쥐고 채편을 동시에 친다.
○	중	왼손바닥으로 북편을 친다.
	덕	오른손으로 채를 쥐고 채편을 친다.



봄웨커와 친해지기

어울림 연주하기

4. 다양한 악기와 함께하는 음악 수업

체육과 관련해서는 뉴스포츠 관련 많은 체육 교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체육 시간에도 다양한 교구들을 안전하게 아이들과 많이 쓸 수 있다. 하지만 음악

교과서에는 아직까지 리코더와 리듬 악기 위주의 수업이 구성되어 있다. 리코더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상극인 악기라고 생각한다. 칼림바, 킷타, 우쿨렐레 등 리코더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악기가 있지만 3-4학년 아이들과 봄웨커 수업을 진행하였다. 봄웨커는 아주 단순한 악기이다. 색깔이 다른 긴 막대기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단순한 악기가 하나로 어우러져 음악이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나서는 악기에 대한 시야도 많이 넓어졌다.

1) 소리내는 방법 찾기

봄웨커는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이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도 선생님이 제시하기 보다 아이들이 교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직접 찾아보는 것이다. 혼자 조용히 두드려보는 아이, 친구와 함께 맞춰보는 아이 등 아이들이 찾아보는 방법 만으로도 그 아이의 성향을 볼 수도 있었다.

2) 어울림 연주하기

계이름대로 앉아서 박자를 쳐보고 박자감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찬 수업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도레미송, 빌헬름 텔 서곡 등을 아이들이 함께 연주하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음악을 완성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수업에 진심인 음악 수업

항상 음악 수업을 준비하다보면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음악 전담으로 하는 수업인 만큼 매 수업에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내 수업에 진심이기 때문이다. 교원 커뮤니티에 끊임없이 자료를 공유하며 500여명의 선생님이 팔로워를 해주시고, 많은 선생님들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받으며 오늘도 열심히 수업을 달려본다.



5. 마무리하며

부끄러움을 떨치고 음악을 부르신다

6학년 수업을 끝나고 학생들에게서 받은 편지의 내용 중 일부이다. 문맥에는 맞지 않는 비문이지만, 학생들이 어떤 의도로 이런 내용을 썼는지 이해는 하였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선생님이 마냥 신기했던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먼저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학생들도 따라 부르는 등의 모습. 항상 모든 활동에 열심히 했던 초임 때의 마음가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다.

인천문남초등학교 교사 안원근

1. 새로운 초등학교로 가다.

새로운 학교로 전입을 가는 날은 항상 두근거림을 만든다. 대부분의 선생님이 다 느끼는 이 감정을 안고, 교무실로 인사를 하러 간 첫 날!
“우리 학교 1지망으로 쓰셨나요?”

“우리 학교 어떤 학교인지 아시나요?”

“잘 오셨어요.”

이런 질문과 인사 속에서 어떤 학교인지 아시나요?라는 질문은 조금 산뜻했다. 소식통을 잘 듣지는 않는 편이지만, 다문화가 조금 더 많다는 정도였다. 이런 사실 하나가 지금까지도 날 힘들게 할 줄은 몰랐다.

2. 2월 학기를 준비하며

학급요록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다. 마찬가지로 이름 외우는 것도...

요록의 반(20명중 8명)이 다문화인 것이다. 발○○○, 스○○, 텐○○.....

학기를 준비하면서 환경 꾸미기, 수업 준비보다 더 걱정했던 부분이 우리 반 친구들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 였다. 첫 인상이 중요하니 기분 나쁘지 않게 다가가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했다.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니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2월을 보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반에 비해 우리 반이 다문화 비율이 적다는 것이었다. 동학년 선생님들, 힘내세요!!!

3. 3월 첫 날 - 無

아이들과의 첫 만남. 이름의 반이 외국인이라 생김새 또한 그럴거라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이였다. 4명정도만 외국인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한국인 같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초 학생들은 고려인의 자손으로 외국 국적과 외국 말을 쓰되 생김새는 한국인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언어였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친구가 1명, 2~4명은 약간 알아듣는 정도, 3명은

거의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머리가 하얗게 변해 갔다.

“국어 교과서 준비하세요.”

평상시 모습이라면, 학생들은 사물함에서 국어책을 가지고 와서 수업을 준비를 하고 앉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긴 다른 곳이었다.

“선~생~님~ 국어-나?”

“선~생~님~ 국...어...활...동?”

정확하게 전달을 하여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 다양한 질문이 나오는 것이었다.

“10페이지를 펴세요~”

이 문장도 반 정도는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문이 쏟아졌다.

“선~생~님... 어디요?”

점점 머리가 아프다...수많은 질문이 수업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무슨 책인지, 몇 쪽인지에 대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이런 질문이 이어지지만, 지금은 칠판에 미리 교과서와 쪽수를 쓰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20년 가까운 교직생활을 신규로 바꿔버리는 기적을 첫 날 경험했다.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 것인가?’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러시아어를 나도 배워야 하는가?’

4. 에피소드 1 - 가장 집중하는 활동 발견!!

매일매일 다음 날 수업을 고민하게 만드는 날이 되면서, 가장 학생들이 집중하는 활동을 찾게 되었다. 바로 초성퀴즈였다.

초성퀴즈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다. 다문화 학생도 열심히 교과서를 찾아가면서 단어를 찾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였다. 그 전까지는 재미있는 동영상, 책 읽어주기 등 흥미를 끌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 초성퀴즈만은 달랐다.

페이지와 초성, 그리고 내용을 주면 열심히 단어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활동을 할 때, 처음으로 수업을 준비한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 아이들은 모든 자료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을 통해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면 답이 있을 것이라는 첫 희망을 안게 되었다. 다른 선생님들도 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단원 도입에 들어갈 때, 전체적으로 책을 훑어 보는 것이다. 단어를 찾고 나서 보통 단어 빙고를 한다. 이 활동은 다른 선생님들이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처음에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 또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 친구와 다문화 친구를 짝을 지어 빙고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였다. 2인 1조가 되니, 서로 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 이 활동으로 지금은 개인이 빙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 준비를 하면서 좌절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하는 활동이 많았다.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한 고정적인 관점을 바꾸고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봐야겠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아이들의 행동과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공감하는 능력도 조금씩 형성되어갔다.**

5. 에피소드 2 - 어려운 국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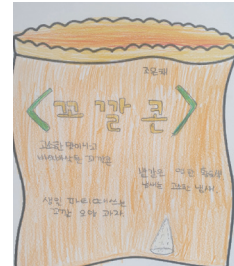
한국인 학생들에게도 어려운 국어시간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울까? 수학수업처럼 수준별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수업의 방향을 차시 목표에 도달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 정말로 어려웠다.

3학년 국어수업 - 동시를 쓰는 수업이다. 글 쓰는 것 자체가 어려운 친구들에게 동시를 쓰게 해야되는 이 암담한 심정!!!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이용하여 맛을 보고, 냄새도 맡아 보고, 씹는 소리도 들어보고 다양한 감각을 동원해 자신의 느끼는 것을 글로 먼저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우리 학교 수업 중, 다행인 것은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이중언어 선생님이 들어온다. 그 선생님께서 수업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다 해준다. 이중 언어 선생님이 들어오는 시간에 국어 또는 수학 수업을 시간표에 배치한다.)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까?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는 어려웠지만, 자신의 생각을 시로 표현하여 즐겁게 수업을 하였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열심히 한 흔적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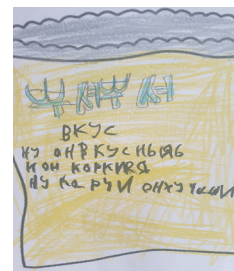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사가 수업에 대해 더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그 학생들에게 교사가 학습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 학생



한국어를 제일 잘하는 다문화학생



다문화 학생 1



다문화 학생 2

6. 에피소드 3 - 왜요????

3학년 수학의 꽃은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수학에 대한 포기를 조금씩 맛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문화 학생들은 국어에 대한 이해도는 어렵지만, 수학계산은 숫자로 하는 것이라 그나마 잘 따라옵니다.

2학기 나눗셈 시간입니다. (몇십몇) ÷ (몇)을 알아보는 과정이었다. 문장제 설명을 최대한 적게 하고, 수 모형 막대를 이용하여 최대한 천천히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다. 한 두 문제를 같이 풀고, 다른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였다.

한 다문화 여자 학생이 계속해서 연필만 잡고 문제를 풀지 않고 있길래, 다시 설명을 해주기 위해 옆에 갔다. 수의 자리에 맞게 나눗셈의 몫을 쓰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왜요???”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아, 다시 교구를 가지고 설명을 시작했다. 서너번 설명을 해주는데, 계속해서 “왜요???, 왜요???, 왜요???”

순간 화가 많이 났지만, 한국어 설명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보다 못한 이중언어 선생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데, 자신이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러시아어로 욕을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수학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다고 많이 생각했는데, 이번 문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 많이 차이를 느꼈다.

***한국 친구들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고 답하는 과정을 많이 합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그런 질문을 계속하는 친구를 칭찬하고 묻고 답하는 과정을 해결해 가는 모습을 함께 만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게 만듭니다. 또, 스스로 언어공부를 해야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7. 앞으로 한 발 나아가기

지금까지 다른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겪었다. 한국학교라는 생각보다는 외국학교에 한국인이와 있는 느낌이 더 강하다. 그래도, 교사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하는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 봐야겠다. 러시아어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너무 어려운 언어이기도 하고 남은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향상될지도 의문이 들기도 한다.

수업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더 해보면서, 함께 아이들을 발전해 나아가갈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다.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더 성장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제도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작은 교실 안에서 하나씩 바꿔 나아가 보겠다. 

선생님도 1학년은 처음이라

인천만수북초등학교 교사 원지현

2022년 2월 겨울의 어느 날, 초등교사로 발령 난지 어언 4년이 된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출근을 했다. 학년 배정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1년간의 학급 운영을 위해 겨울 방학 동안 연수도 열심히 듣고 학급 운영 계획도 세워두었다. 그 대상은 물론 고학년이었다. 담당 업무의 특성상 올해도 당연히 고학년을 맡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학년 배정표를 확인해보니, 이게 웬일인가! 학교 상황으로 인해 생각지도 않았던 1학년에 배정되어 있었다. EBS ‘극한직업’에 출연했을 정도로 어려운 학년이라는, 경력 많은 선생님들께서 보통 담당하신다는 미지의 세계 1학년? 막연한 두려움이 올라왔다. 그때 내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바로 겨울 방학 교원연수를 들을 때 스쳐지나갔지만 웬지 모르게 눈길이 갔던 1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였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바로 그 연수를 신청하고 새학기 준비를 새롭게 시작했다.

처음으로 초등학교라는 곳에 발을 내딛은 아이들, 처음으로 초등학생이 된 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을 마주하게 된 1학년 선생님. 처음이라는 단어로 가득한 교실 안에서 지난 8개월간 써 내려간 수업일기의 내용을 이 글을 통해 이야기해보려한다.

1. 아이러니했던 학기 초

지난 겨울 방학 동안 미리 세워두었던 1년 간의 학급운영계획은 1학년의 교실에서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1학년 교과서를 펼쳐보고 든 생각은 막연함이었다. 이렇게 당연한 내용들로 수업을 해야 한다니! 2주간의 학교 적응 기간에 배우는 ‘신나는 우리 학교’

책으로 어떻게 수업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물론 이 기간동안 가장 중요하게 학습 해야 할 것이 “학교 규칙 및 생활습관”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급식실 이용법, 화장실 이용법, 줄서기 등등 너무도 당연한 것들로 수업을 몇 시간씩 해야 한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으니 감이 잡히지 않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계획적 성격인 내가 낸 해결책은 인터넷의 온갖 ppt자료, 색칠자료, 영상자료를 끌어모으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학년 선생님들께서 주신 수업 흐름 팁을 바탕으로 매 수업 매 교시를 10분 단위로 계획을 세워 열심히 수업을 했다. 학교 적응기간이 끝나고 국어, 수학 등의 교과 수업이 시작된 후도 마찬가지였다. 여유가 없는 하루하루였다. 그 당시 우리 반 교실에 잠시 들리셨다가 깜짝 놀라시며 “수업 엄청 열심히 준비하는구나~”라고 말씀하셨던 동학년 선생님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들린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수업방식은 이제 갓 1학년에 올라온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은 수업법이 아니었을까 싶다.

아이들은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책상과 의자에 앉아있기 힘들어했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는 일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스트레스였다. 나는 원래 ‘독립적이고 스스로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학급을 경영하기 위해 사소한 결정도 학생들에게 맡기고 학급회의를 운영했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적으로 수업 활동을 구성하고자 했다. 특히 체육 교과수업을 자주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 어리고, 학교에 익숙하지 않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탁구공 같은 학생들의 태도에 통제하는 말을 제일 많이 했다. 안전 문제를 생각하며 전전긍긍하고 교실 안에 가둬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강당이나 운동장에서 신체활동은 엄두도 나지 않았다. 신체활동, 조작활동을 가장 많이 해야 하는 1학년 학생들과 가장 정적인 수업을 하고 있다니 아이러니했다.

2. 수업 포기 선언

“애네 유치원에서 올라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교사가 여유로워야 아이들도 여유로워요.” 여유 없이 허둥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동학년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이다. 항상 아이들의 안전에 전전긍긍하고 수업계획에 쫓기듯이 하루를 마무리하던 나는 결국 마음속으로 수업 포기 선언을 했다. 무의식적으로 기존 고학년 수준에 맞춰져 있는 수업을 포기하고, 아이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새롭게 수업을 구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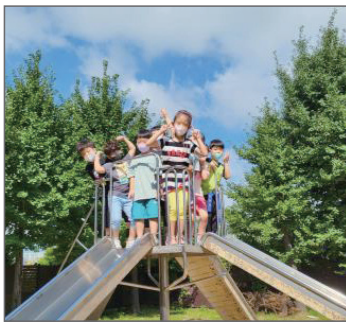
첫 번째로 한 것은 ‘바른 자세에 대한 강박 버리기’였다. 고학년들의 바른 수업 자세와 조용한 수업 태도를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다보니 1학년 아이들에게도 교사의 말에 한 번에 집중하는 것,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것, 조용히 하는 것 등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요구했다. 하지만 유치원 때까지 좌식생활이 익숙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의자에 앉아 40분씩 수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동학년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아이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가만히 있기 게임 (1분-2분-3분 등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하거나, 학생들이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흥미로운 학습내용을 준비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둘째로는 ‘수업시간 재배치’였다. 고학년 담임교사를 할 때 많은 수업양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40분씩 수업했던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 1학년을 수업하면서도 40분씩 수업하는 것이 우리 교실의 모습이었다. 이제는 여유를 되찾기 위해 수업 시간은 25분 정도로 생각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은 교과서와 학습준비물 준비, 집중, 짧은 스트레칭과 체조, 동요부르기, 놀이시간, 짧은 영상 시청 등을 했다. 40분 수업계획을 세웠던 때는 준비물을 꺼내거나 집중하지 못해 시간이 지체되었을 경우 학생들을 재촉하고 다그쳤다. 하지만 어린 1학년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간에 여유를 갖고 난 이후로는 교사도 학생들도 한층 안정적으로 변했다.

세 번째로는 신체활동이었다. 안전, 학생통제 등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 미뤄왔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었다.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신나고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아이들이었기에 일단은 교실에서 자신의 영역 안에서 하는 신체활동부터 시작했다. 그 다음으로는 안전과 규칙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줄서기 연습을 한 후, 외부에 나가서 하는 체육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번 체육을 할 때 두 차시 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 제시간에 규칙을 지키며 즐거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규 교과 시간에서 진도를 자유롭게 조절하고, 남은 시간에 아이들과 산책을 하거나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는 등 자유롭게 뛰어 놀 때도 있다.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다 보면 나도 웃음이 지어진다. 역시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 놀아야 하나보다.



놀이터 놀이 사진(위) / 학교 숲 산책 사진(아래)

3. 인천시교육청 학생성장중심수업 컨설팅 참가

학기 초 인천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성장중심수업 컨설팅’에 신청했다. 우리 학급에는 코로나로 인해 유치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하거나 친구들과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학생들이 많았다. 친구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협동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1학년을 처음 맡아 교육과정도 잘 모르고, 생활지도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협동학습까지 설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컨설팅에 신청하게 되었다. 국어교과로 수업하기로 결정한 후,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니 막막했다. 아직


한글도 다 익히지 못한 아이들과 공개수업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해야 할까 싶었다. 멘토 선생님과 상의를 하다보니 그 해결책은 ‘모둠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학년에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사용하는 수업기법이었지만 1학년을 맡은 후로는 엄두도 못 냈던 것이었다. 하지만 컨설팅을 기회 삼아 모둠활동을



계속해서 연습하다보니 학생들은 적응하여 수업활동들을 곧 잘 해냈다. 또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모둠활동을 이끌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도와주었다. 그 장면들을 보고 교실에서 정말 배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1학년도 모둠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1학기 말에 수업한 본 컨설팅의 학습문제는 ‘모둠별로 문장을 쓰고 그림책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모둠별로 그림책틀과 그림 4장을 나눠주었다. 그림의 순서를 마음대로 배치하여 책에 붙이고 스토리를 구상하고 한 문장씩 써서 그림책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돌발상황도 있었지만, 친구들과 협동하여 결과물을 완성해내는 모습들을 보니 앞으로도 교육과정 및 교재연구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리고 1학년 수준에서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경험한 뜻깊은 일이었다.

4. We are the 1(one).

1학년 교사를 맡은 지 이제 8개월차. 1학기 초와 달라진 점은 물론 많지만 아직까지 나는 부족한 점이 많은 교사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지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런 내게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동학년 선생님들이다. 1학년은 학교 내에서 다른 학년보다도 동학년 선생님들이 서로 힘을 합쳐 수업연구와 준비를 많이 한다.

또한 저학년 경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언을 얻기도 한다. 그렇기에 나는 ‘we are the 1(one)’이라고 말하고 싶다. 또한 우리 반의 경우 교사인 나, 학생들, 학부모들 모두 처음이다. 1학년의 학습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가정에서의 협력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앞으로 나는 ‘we are the 1(one)’을 계속해서 외치며 계속해서 반 아이들을 위한 수업연구와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필리핀과의 교육 교류를 통한 우물 안 중견교사 성장기

인천초은초등학교 교사 이해미

1. 연구의 출발 - 이렇게 시작했어요

2016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APCEIU)에서 주관하는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사업에 참여하여 필리핀 파견을 다녀온 경험은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기본적으로 필리핀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성실한 편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수업에서 정말 즐겁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했던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다문화교육을 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기회만 있다면 외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졌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 교류는 더 이상 불가능하리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반쯤 포기하며 지내던 중, 온라인 교육교류 사업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기쁨도 잠시, 어떻게? 라는 물음표가 따라왔다. 필리핀은 온라인 교육 여건이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열망도 함께 생겨났다.

한국 학생들이 당연히 누리는 질 높은 온라인 교육을 필리핀 학생들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 이런 개인적인 열망 하나로 열정 있는 선생님들을 설득하여 초은초 세계시민교육 연구회를 조직하여 2022년 온라인 교육 교류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2. 연구의 방향 - 이렇게 나아가고자 했어요.

연구회 5명의 교사가 모여 해외 학생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선례를 나누다 보니, 다문화교육 중심의 수업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교육도 물론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지만, 단순히 너와 나의 문화를 비교하는 것에 그치는 수업은 너무 피상적인 느낌의 수업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우리 연구회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1. 양국의 문화 탐색을 통한 다문화교육 실시
2. 해당 차시 다문화교육(예: 양국의 음식 문화)과 관련된 세계시민교육(예: 음식과 관련된 공정무역)으로의 확장
3. 문제 인식에서 나아가 문제 해결 의지 다지기

3. 연구의 계획 - 이렇게 틀을 마련했어요.

1. 연구회 정보

연구회명	초은초 세계시민교육 연구회	
연구회원	이름	담당 업무
	이남주	사업 전·후 설문조사 관리 및 각종 보고서 작성
	박정애	활동 전반 계획 관리, 학생 관리 및 수업 보조
	이혜미	수업 수행, 현지 학교와 활동 계획 및 조율
	김혜은	학생 교류 프로젝트 운영 및 관리
	강주희	교수활동지원비 및 기자재사용비 집행 및 관리

2. 월별 운영 계획

일시	활동영역	활동 내용
6월	참가학교 선발	◦ 국내교 / 해외교 선발
7월	교내 사전 준비	◦ 교내 협력 체제 구축 및 온라인 교육교류 환경 조성
8월	협업 사전 준비	◦ 교류 국가 / 파트너 학교 배정 ◦ 세부 교육활동 계획 수립
8-10월	교육 교류 수행	◦ 온라인 수업 (한국 3회, 상대국 3회) ◦ 연구회 학생 간 프로젝트 운영
11월	최종 보고	◦ 최종 보고서 제출 / 최종 보고회

3. 수업 활동 계획

회차	수업대상	일시	수업주제	담당교사
1	한국 학생	2022.9.15.(목)	필리핀과 한국의 전통과 문화 비교 및 도우 클레이 만들기	필리핀 교사
2	필리핀 학생	2022.9.22.(목)	한국 음식 문화를 통한 문화 교류 및 공정무역 이해하기	이혜미 이남주
3	한국 학생	2022.9.29.(목)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재활용 활동하기	필리핀 교사
4	필리핀 학생	2022.10.6.(목)	세계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자원 재활용품 만들기	이혜미 김혜은
5	한국 학생	2022.10.13.(목)	생물다양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종이 매트 만들기	필리핀 교사
6	필리핀 학생	2022.10.27.(목)	K-POP을 통한 세계 평화를 인식하고 실천의지 다지기	이혜미 강주희

4. 연구의 실천 - 이렇게 실천했어요.

1. 필리핀 학생 대상 수업 1차시 수업

1) 수업의 시작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수업 선정 이유 - 양국의 음식문화의 유사성을 수업에 활용하여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주제인 공정무역까지 다루면 유의미할 것 이라 생각함. ◦ 본 학습 주제가 가지는 의미 및 중요성 - 공정무역에서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아동 노동력의 착취이므로 학생들이 가깝게 생각할 수 있고, 세계 여러 가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기에 매우 효과적인 주제임.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을 위한 사전 조사 내용 - 필리핀과 한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 및 바나나 등의 농산물의 불평등한 수익 구조 ◦ 파트너 학교 교사와의 협의 내용 - 수업 자료 교차 검토 및 교수학습 준비물 배부 현황 파악

2) 수업의 진행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과 필리핀의 정치적, 인적교류, 문화적 관계에 대하여 알아봄여 양국의 연관성 살피기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의 음식문화를 비교하고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필리핀 과일인 바나나의 수익구조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인애플이 나에게 오는 과정을 통하여 공정무역의 의미와 필요성 이해하기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무역 제품 실을 이용하여 팔찌 만들기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무역 노래 부르기

3) 수업 소감

처음에 학교 컴퓨터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과 달리 당일에는 각 가정에서 수업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필리핀 선생님과는 SNS 채팅으로 실시간 소통을 하고 있다), 준비 상태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인가?’

하지만, 수업을 시작하기 전 점검차 들어간 줌 화면에 이미 학생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배경화면도 통일되고, 티셔츠까지 깔끔하게 맞춰 입은 완벽한 모습으로 생글생글 웃으며 나를 기다리는 모습에 어안이 병병할 뿐이었다. 온라인 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는 선입견에 사로 잡혀 그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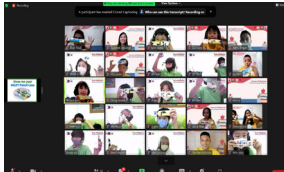
열정과 노력은 보지 못한 내 모습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역시 교육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구나, 사람들의 노력에 이길 바는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 수업이었다. 수업은 매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이전에 하던 해외학생 대상 다문화 수업은 활동 중심으로 계획하여 설명할 부분을 최소화하였는데, 이번 수업은 걱정하고 세계시민교육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나의 설명 부분도 꽤 길어 대본을 미리 쓰고 며칠 전부터 매일 2-3번씩 수업을 암기했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두 눈 반짝이며 내가 이끄는 수업에 잘 녹아들며 활발하게 참여를 해준 필리핀 학생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다. 학생들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거의 처음 접하였는데, 이번 수업을 계기로 관심이 생긴 것 같다. 수업을 정말 즐기는 듯한 모습에 준비한 교사로서 뿌듯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번 수업을 계기로 교사의 준비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아짐을 또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

2. 필리핀 학생 대상 수업 2차시 수업

1) 수업의 시작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수업 선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우리가 세계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하고 비교적 쉬운 주제가기 때문에 선정함. ◦ 본 학습 주제가 가지는 의미 및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주변에서 쓰레기가 잘못 처리되는 예가 너무 많고,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고찰할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주제는 꼭 다뤄야 한다고 생각함.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을 위한 사전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과 한국의 다채롭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조사 및 환경오염 실태 조사 ◦ 파트너 학교 교사와의 협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자료 교차 검토 및 교수학습준비물 배부 현황 파악

2) 수업의 진행

도입	<p>◦한국과 필리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알아보기</p>
전개	<p>◦한국 서해, 필리핀 보라카이, 태평양 쓰레기섬의 예를 보며 세계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이해하기 및 OX 퀴즈하기</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green; padding: 5px;"> <p>< OX QUIZ - 2 ></p> <p>Korea has the highest consumption of plastic per person among the world countries. (한국은 세계 국가 중에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많다.)</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 font-size: 2em;">X (3rd place)</p> </div> </div> <p>◦쓰레기 처리 과정 및 매립, 소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재활용의 의미와 필요성 이해하기 및 아이사투 동화 돌아가며 읽기</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우유팩 필통 만들기 및 퀴즈 풀기</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정리	<p>◦Where Are These Born From? 퀴즈하며 정리하기</p>

3) 수업 소감

필리핀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42명 모두와 함께 하는 첫 수업이었다. 서로 다른 국적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수업은 처음이었고, 발표하는 학생들의 말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동시 통역을 해주어야만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될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처음 5분 간은 정신없이 흘러갔는데 한 순간이라도 집중을 안 하면 동시 통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신경을 곤두세우고 수업에 집중하였다.

한국, 필리핀 학생 모두 우리의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이 쓰레기 문제의 큰 원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져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재활용에 관련된 Aisatu Story는 42명이 골고루 읽을 수 있도록 배분하여 한 명, 한 명 느리지만 같이 읽어 나가며 재활용의 의미를 마음깊이 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우유팩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재활용을 직접 실천하는 활동까지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된 수업이었다.

5. 연구의 결과 – 이렇게 결실을 맺었어요.

Teacher Hyemee helped making the atmosphere at ease. So the lesson and activities were enjoyable and educational. This opportunity don't always come so forever grateful to take part in this. Looking forward for the next class already! Salamat po! – Zach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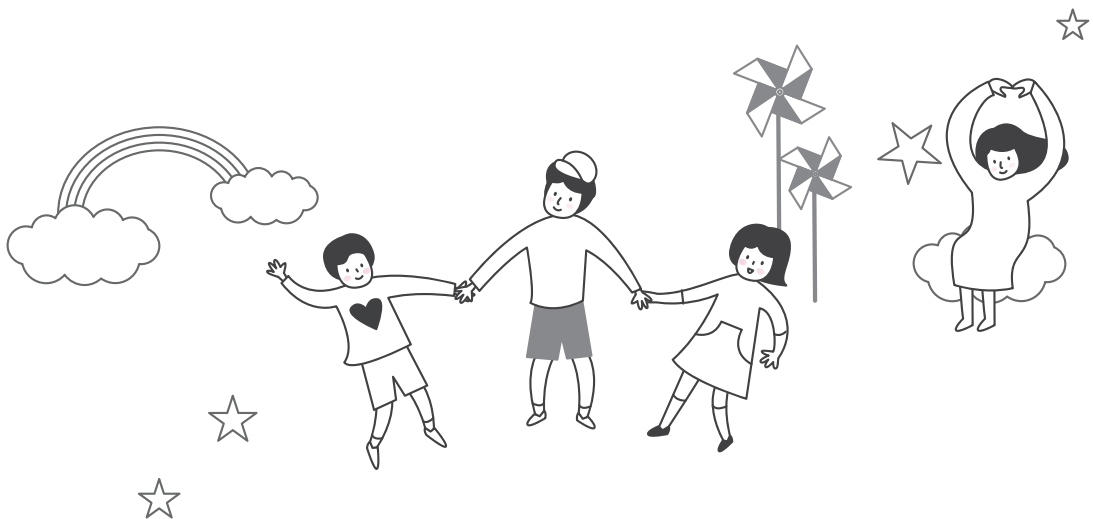
위의 글은 Zachary라는 학생이 필리핀 교사, 학생 단체 채팅방에 남긴 글이다. 이 학생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 학부모의 댓글이 이어졌고, 필리핀 선생님들은 친히 보여주셨다. 필리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이번 교육 교류 사업은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교육교류에 참여하는 순간 내가 하는 수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업이라는 책임감으로 수업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단순 흥미 위주의 문화 교류 수업이 아닌, 문화 교류에서 나아가는 세계시민교육의 첫걸음을 떼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한다.

올해로 19년차 교사가 되었다. 그동안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일 것이다. 관성에 젖어 늘 해 오던 것을 반복하는 생기 없는 나를 보는 것에 지쳐 용기를 내 보았는데, 역시 무엇이든 도전하는 것은 항상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또 깨닫는다. 이 경험이 훗날 한국 학생들 상대로 세계시민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도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연구 결과, 세계 문제에 관심이 생겼다는 학생이 87%에 달한다. 실로 놀라운 수치이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노력으로 우리 모두의 문제는 반드시 언젠가는 해결되리라는 믿음을 가져본다.

6. Episode

필리핀으로 보낼 수업 준비물을 200만원도 훌쩍 넘게 구입하였다. 꼭꼭 눌러 담았는데도 12kg 상자로 3상자. 보내는 것부터가 큰 일이었다. 연구회 선생님 2명과 함께 끙끙대며 옮겨 가져가 겨우 부칠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다. 마닐라 섬이 아니라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데 확실한 기약이 없었다. 1주, 2주가 지나도 감감 무소식인 상황. 수업일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아무 소식 없는 야속한 필리핀 우체국. 결국 우리나라 우체국에 우편물의 행방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까지 하고 나서야 필리핀 현지 우체국에 도착해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때의 감격이란! 그 날이 바로 수업 전날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필리핀은 택배가 주소지까지 가지 않는다. 급하게 필리핀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하여 트라이시클을 빌려 그 큰 상자 3개를 옮기셨다는 후문이 들려왔다. 급하게 찾아와서, 급하게 학생들에게 준비물을 배부해주신, 그래서 무사히 첫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필리핀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1학년에게 접속하는 방법

인천별빛초등학교 교사 이효진

벌써 가을의 한복판입니다. 올해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할 때 잔상이 강하게 남은 일을 지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억이 줄어들면서 점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다가가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며 살아가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사라는 것은 지금 당장 행복해지기에 가장 적합한 직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입니다. 87년생입니다.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기 불과 1년 전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우리반 학생들은 15년생입니다.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1년 뒤에
태어난 알파 세대입니다. 과연 호돌이는 물범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고학년만 연달아 맡던 5년 차에 처음 1학년 담임이라는 발표 통지를 받아 들고 머릿속에서 천둥
번개가 치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가장 먼저 밀려드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밑바닥을
조심스럽게 들춰보면 유치원을 갓 졸업한 8세 어린이는 내게 미지의 영역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교육실습을 두 번이나 나간 학년임에도 그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어느덧 1학년 담임을 4년째 하고 있는 나름의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교사들 사이에서 졸업을 시켜야 하는 6학년이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1학년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글을 읽으실 선생님들께 1학년이 얼마나 매력이
넘치는 학년인지, 또 제가 4년 동안 어떠한 성장을 이루며 그들에게 건너갈 수 있었는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학년 학생들과의 멀고도 먼 거리를 연결하는 다리를 완성하느라 오늘도 분투하고 계실 선생님들께
제 글이 하나의 좋은 재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1학년의 세계

1학년은 본인의 생각을 미주알고주알 꺼내 놓기를 참 좋아합니다. 고학년보다 훨씬 용감하고요.
그래서 발표 수업이 수월한 학년입니다. 선생님이 자기만 발표시켜주지 않는다고 토라지면서도
뒤돌아서면 금세 까먹는 귀여운 어린이들입니다.

1학년은 특별한 이유 없이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학년도 그렇지만 1학년이 선생님에게 가지는

관심과 애정은 정말로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 선생님의 삶은 그 자체로 1학년에게 강력한 자석 같은 수업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1학년은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한 장난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한 몸과 친구,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만 있다면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즐거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선생님이 마련한 “아주 단순한” 놀이라도 있다면 쉬는 시간에도 자발적인 수업이 적극적으로 이어집니다.

1학년은 진솔합니다. 주저 없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그것이 거부당할지언정 마음속 깊이 담아두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준다면 어른보다 깊은 아량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개입하지 않는 토론이 가능하지요.

1학년은 강낭콩처럼 나날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매 학년말에 빠지지 않고 동학년 선생님들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다 키워놨는데 2학년 올려보내기 아깝다.”였습니다. 3월에는 실내화 자리도 잘 못 찾던 학생들이 10월에는 오늘 수업 진도가 어딘지 먼저 찾고 선생님에게 알려줍니다. 업무에서 어떤 긍정적 변화를 일으켰는지 바로 알아내기 힘든 불확실성은 성과를 양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교사들이 직업적으로 성취감을 느끼기 어려운 요소 중의 하나인데 1학년만큼은 절대적으로 예외입니다. 가을 즈음의 1학년은 교사에게 살아있는 포트폴리오 그 자체입니다. 교사는 살아 움직이는 포트폴리오와 매일 만나고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며 한편으론 교사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반성하며 함께 성장합니다.

처음 1학년 교과서를 제대로 마주하면 막막합니다. 국어 1학기 1단원인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는 망망대해 그 자체입니다. ‘이 내용을 40분이나 가르쳐야 한다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 1학기 1단원인 「9까지의 수」는 더합니다. 이제 네살 된 조카가 12까지도 한글과 영어로 곧잘 세는 것을 보면서 학생들이 다 아는 내용에 지루하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대학교 4학년 교육실습 때 「50까지의 수를 세어볼까요」 수업 도입부에서 맨 앞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선생님, 전 이거 다 알아요!” 라고 외치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1부터 50까지 줄줄 읊는 모습에 어찌할 바 모르고 찢찢매던 제 모습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합니다.

혼돈의 정점은 통합교과에서 찍습니다. 바슬줄 세대인 우리는 임용고사 공부를 성실히 했어도 막상 현장에서 만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교과서가 어렵습니다. 학교 설명회에서 보호자들에게 교육과정을 설명해 드리다 통합교과에서 말이 길어지는 일도 비밀비재합니다. 오히려 통합교과에 편견 없이 가장 빨리 적응하는 사람은 교사도 보호자도 아닌 학생이었습니다.

1학년이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수업을 설계했는데 온통 눈물바다가 된 수업도 있었고, 이걸 조금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참여한 수업도 있었습니다. 과연 1학년을 두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연륜’ 있으신 선배 교사들을 제외하고 ‘전문가’로 거듭나는 것이 가능할까 혼자 자책하고 회의하는 날들이 1학년 초보 담임의 가슴을 관통하며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2. 1학년은 다 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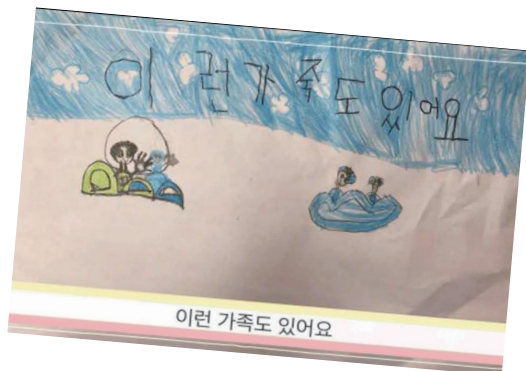
프로젝트 학습, 학생 주도형 수업, 민주적 학생자치 회의, 토의토론.. 초등학교 1학년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러슨(Sarason, 1982)은 교실수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결정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초등학생의 행동관찰에 숨어있는 몇 가지 전제를 암시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사가 가장 잘 안다.
2. 규칙을 도출하는 데 학생은 건설적으로 참여할 능력이 없다.
3. 학생은 이러한 논의에 관심이 없다.
4. 규칙의 제정 대상은 학생이지 교사가 아니다.

교사들은 가르치는 대상의 나이가 어릴수록 계획과 학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학생들과 거의 논의하지 않으려 합니다. 학생에게 부여되는 과제는 오로지 답을 찾고 사실을 아는 일에 그치게 되지요. 이는 교사들이 부지불식간에 자신들 스스로도 지루해 하는 여건을 만들게 됩니다.

학생들의 삶은 나날이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교사가 그들의 세계에 일일이 접속하기란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1학년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도 다 제 속과 사정이 있고 교사가 이해하기엔 이미 까다롭고 복잡한 거대한 우주가 조그만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가져와 단독으로 계획하는 획일적인 수업이 과연 학생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수업을 계획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이런 활동을 할 건데/ 다음주부터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정중하게 묻습니다.



통합교과 여름 1단원 「우리는 가족입니다」 단원을 시작하면서 저는 교육과정을 프로젝트 수업으로 재구성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학급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사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여름 교과서를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학생들과 함께 교과서를 쭉 살펴 보았습니다. 교과서 내 사진 자료에서 ‘아빠-엄마-아들-딸’로 구성된 가족의 삽화가 지배적이라는 것을 찾은 것은 제가 아니라 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족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반 학생들은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동화책을 읽었고, 친척에게 안부 전화를 걸며 가족 인터뷰를 했고, 친구가 찾아온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역할극이나 놀이로 학습하였으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가족을 조사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새롭게 알게 될 때마다 우리는 드래곤볼을 수집하듯 매일 지을 필요가 없는 보조칠판에 일일이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반 학생 수만큼 가족의 형태가 조사되었던 날, 학생들은 희망하는 가족을 하나씩 맡아 도화지에 정성껏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작품 사진을 모두 찍어 배경음악과 함께 동영상을 만들었지요. 학생들은 영상 자막을 쓰고, 아직 글자를 읽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각장애인을 위해 오디오 녹음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만든 가족 그림책이라 불렀고, 그 책의 제목인 ‘이런 가족도 있어요’ 또한 학생이 직접 지었습니다.

완성된 그림책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팝콘과 오렌지 주스를 준비하여 상영회를 가지며 학생들과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온라인 알림장을 통해 보호자들께도 유튜브 주소를 공유하였고, 우리가 학교에서 진행해 온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를 보호자들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림책의 내용이 감동적이고 정상 가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감사한 피드백을 당시에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그림책은 올해도 제가 수업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신규교사 멘토링 지원단을 하면서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로 신규 선생님들께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3.1학년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날들

흔히 어린이를 새싹에 비유합니다. 그것은 매우 진부한 표현이지만 어린이는 정말 새싹이 맞는지 식물 기르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별레가 끄찍이도 싫어서 집에 화분 하나 놓지 않던 저는 1학년 담임을 4년 하면서 반 농부가 다 되었습니다.

물론 학교 여건에 따라 키울 수 있는 식물의 범위는 많이 달라집니다. 텃밭이 넓었던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봄에 씨감자를 키우고, 여름에는 방울토마토와 강낭콩을 길렀습니다. 잘 자라던 강낭콩을 학교에서 기르는 돼지 똥이 삼시간에 먹어 치워 두고두고 미워했던 학생들이 늦가을에 열무를 수확하고서는 맛있는 잎을 골라 다시 똥이에게 가져다 줍니다. 열무는 똥이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겨울 교과 2단원 「우리의 겨울」을 프로젝트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초가을에 열무와 상추를 심어 수확한 뒤 학교 근처의 사회복지관에 있는 ‘모두의 냉장고’에 찾아가 직접 기부하는 나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새로 전입한 학교는 아쉽게도 텃밭이 조금 작았습니다. 작년과 같은 생태 수업을 전개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지요. 저는 학생들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영민한 1학년은 허브 식물을 기르기로 선택하였고, 우리는 애플민트와 페퍼민트를 교실에서 길렀습니다. 학생들은 생태 동화책을 읽고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초청한 강사를 통해 지렁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교 화단과 운동장 모래 놀이터에서 흙을 실컷 만지며 흙놀이를 하였습니다. 수확한 허브 식물의 잎으로 덧셈과 뺄셈을 하고 ‘라임 애플민트 청’을 만들어 그것을 집에 가져가 가족들과 음료를 만들어 마시며 프로젝트 수업은 훌륭히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청을 가정에서 받아보신 보호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1학년이 식물을 즐거움으로만 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냥 어려워도 다 속은 있습니다. 생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학생들의 가장 주된 의견은 ‘내가 식물을 잘 돌보지 못 해 혹시나 죽을까봐 걱정된다.’였습니다. 듣는 저도 놀랄 정도였지요. 알림장에도 생태 프로젝트를 시작했음을 공지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진솔한 반응도 함께 적었습니다. 그에 감응한 보호자들은 가정에서 허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팁을 찾아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렇듯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기른 애플민트와 페퍼민트의 향기가 교실을 가득 채워 출근한 직후의 아침이 참 행복했었습니다.

4.1학년에 접속하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위에 서술한 것처럼 항상 제가 성공적인 수업만을 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시행착오의 연속이지요.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시행착오 속에서 좌절하고 자책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다가갈 새로운 경로를 찾아낼 전문성과 자신감, 회복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수업 계획과 실행의 주도권을 어린 학생들을 믿고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 안내자와 동행자로서 그들과 함께 하는 과정은 생각 이상으로 교사에게 편안함과 성공적인 결과 모두를 가져다줍니다.


동료 선생님들과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시키는 시간이 천군만마 이상의 든든함을 가져다주는 것은 이미 제가 덧붙일 필요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헨리(Henry, 1996)는 “전문가라는 말은 더이상 학교에서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업을 잘하기 위해 교사 혼자 교실에 틀어박혀 고민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의논합니다. 8세 어린이들은 고민하는 36세 어른에게 직관적이고, 솔직하고, 예리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온라인 알림장은 학교와 학급의 공지사항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창구가 아닌 담임교사의 싸이월드 시절 다이어리와도 같은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어린 자녀의 학교생활에 안 그래도 관심이 많은 보호자들은 자녀들에 대한 애정을 담백 담아 부담 없이 댓글로 프로젝트 수업 계획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내놓아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쌓이는 믿음과 유대감은 덤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동료 선생님들과의 협력 관계는 수업의 성장을 위해 빠질 수 없는 필수 자양분입니다.

저는 오늘도 향긋한 허브 냄새와 저를 놀라게 할 학생들의 날카로운 생각과 의견을 기대하며 교실 문을 활기차게 열고 들어가 매일 한뼘 더 성장한 모습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원칙과 사랑을 지키며 성장하는 교사

인천부광초등학교 교사 **최명진**

1. 순수와 열정의 시대

2003년, 대학을 갓 졸업하고 24살의 나이로 5학년 담임을 맡았다.

그때 나는 스스로 꽤 어른이라고 자부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이들보다 조금 성숙한 큰누나 정도의 정신세계를 갖고 있었음을 고백한다.

아직도 강렬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일이 있다. 서예를 하고 교실 바닥에 먹물이 잔뜩 묻어있었는데 누가 그랬냐며 범인을 잡으려고 아이들을 한껏 다그쳤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선생님인 나는, “너무 실망해서 점심은 안 먹을 거야.”라고 말도 안 되는 선언을 하고 혐의실로 가버렸다. 속상해서 밥을 안 먹는 선생님이라니! 다행히 착한 아이들은 내 것까지 급식을 받아놓고 용서해달라며 데리러 왔다. 나는 못이기는 척 밥을 먹으러 교실로 오면서 부끄러움도 몰랐던 것 같다.

어린 나는 자신만만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걸 몰라주면 배은망덕한 일이지. 툭하면 눈물이 나서 볼 안쪽을 어금니로 꼭 눌러가며 감정을 제어해야 할 정도로 미숙했지만 순도 100프로 사랑으로 가득했다.

항상 진도는 늦었고, 전담 선생님에게는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반으로 낙인찍혔지만 순수하게 아이들을 사랑했고 퇴근 시간을 넘겨서까지 사물함 위에 올라가 아이들 작품 하나하나를 전시했다.

2. 위기

열정과 사랑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통하는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신규 발령 후 3년간 신념을 지킬 수 있었던 건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다.

2006년, 첫 6학년 담임을 하며 나는 산산히 부서졌다.

아이들은 그야말로 갱스터 같았다. 내가 없는 교실은 무법천지로 의자로 친구 손을 내리쳐 뼈가 부러지기도 했고, 먹지 않은 우유를 학교 담장 밖으로 던져 지나가는 차 맞히기 놀이를 하다 교통사고가 날 뻔하여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다. 하도 점심시간에 난리를 쳐서 못 나가게 했더니 화장실 창문을 타 넘고 선생님 차 위로 점프를 해서 차를 찌그러트리기도 했고 게임머니를 거래하다 서로 협박하고 싸워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다행히 선천적으로 명랑했던 나는 이 직업을 그만 두어야겠다거나 극심한 우울증에 병가를

고려하지는 않았다. 다만 달팽이처럼 작은 실수와 비난에도 한없이 움츠러들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미로에 빠진 기분이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부르셨다. 교장 선생님은 화분을 같이 닦자고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다 문득, “힘들지?” 하시는데 왈각 눈물이 쏟아져 엉엉 울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교장 선생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공부 잘해서 교대 오고, 시험 잘 봐서 임용고시 한 번에 붙어 3월 발령 받았으니 인생의 위기를 얼마나 겪어봤을까? 어떤 사람은 위기에 봉착하면 무조건 피하려 들지. 어떻게든 그 일을, 그 학년들, 그 반을 맡지 않으려고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면으로 맞서 헤쳐 나가. 지금 힘들다고 6학년을 다시 안하러 한다면 긴긴 교직 생활은 두려움 속에 더 힘들어져. 최선생은 지혜로우니까 평탄한 인생에서 처음 맞은 위기를 잘 헤쳐 나갈꺼라 믿어.”

나는 아직도 이 말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리고 매 순간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 없이 마주하고 나면, 다음 해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 줄어든 기분이 든다.

3. 노련함

2007년, 다시 6학년을 맡았다. 처음부터 잘해보고자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집대성하여 차근차근 기록하고 점검해보았으며 학급관리, 수업 지도를 잘하신다는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며 빼곡히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3월 2일, 모든 계획이 서 있었고 나는 더 이상 천둥벌거숭이가 아니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아이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노련하게 학급을 운영했다.

‘우리 선생님 최고!’

이맘때 쯤 학생들과 학부모가 나를 높이 평가하는 것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 같다. 학교 업무도 손에 익어 무엇이든 해냈다. 매년 컨설팅 장학으로 공개수업도 하고, 학교에서 3D업무도 톡하니 말아 칭찬받으며 일하기도 했다.

자아도취의 시대였다. 우리 반이 잘 굴러가는 건 내가 잘해서고 옆 반이 문제인건 그 선생님이 못해서이다. 자만은 하늘을 찔렀다. 계속 이대로 나갔다면 오만한 경험과 지식들을 모아 책을 내거나 후배들 앞에서 고개를 바짝 치켜들고 일장연설을 했을지 모른다.

4. 잃어버린 6년

2번의 출산과 연이은 육아휴직은 잃어버린 6년의 시작이었다.

아기는 밤 되면 자고, 아프지 않으면 울지도 않고 혼자 누워서 잘 노는 줄 알았던 육아 문외한에게 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혼자 극복하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나에겐 없을 줄 알았던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내 사전에 비겁한 도망은 없기에 미련하게 혼자 이고 지고 정성을 다해 두 아이를 키웠다.

예전엔 반 아이가 이상하면 그 부모를 탓했다. 낳아놓고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을 거면 왜 낳았냐고,

어른으로서 무책임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아들, 딸을 낳아 기르면서 나는 한없이 겸허해졌다. 정성껏 키운 아들은 개구쟁이였고, 학교 상담 때는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교문을 통과해 눈물을 뚝뚝 흘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쥐 잡듯이 아들을 잡아댔다.

유치원 식판을 씻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해서 무더운 여름날, 딸아이의 점심시간을 전날 상한 잔반들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하기도 했다.

1년 근무, 1년 휴직을 반복하는 사이 6년이 흘렀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이 시간들 동안 나는 학부모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도 열심히 자식을 키우고 살아가는 데도 때로는 이 모양 이 꼴일 수도 있겠구나. 집단에서 아이의 모습은 집단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구나. 부모는 ‘자식 가진 죄인’이란 마음을 아이를 낳는 동시에 가슴에 새기게 되는구나. 그들도 그냥 인간일 뿐 어른은 아니구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이 시간들 동안 나는 동료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5시 퇴근과 동시에 집으로 출근하는 수많은 육아 동지들에게 연민과 애정을 갖게 되었다. 사람을 저마다 사정이 있구나.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주제넘은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했다.

5. 다시 시작

자식이 나를 더이상 쫓아다니면서 찾지 않게 되자 어느덧 40대가 되었고, 부장을 맡아 3년째 하고 있다. 이 또한 열심히 노력하면 피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렇게 오랜 시간 살다보니 웬만한 건 그냥 부딪치며 살아가게 되었나 보다.

또 열정만 가득했던 신규시절과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10년차, 집보다 학교에서 일하는 게 어찌면 더 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30대를 지나, 나도 이제 후배, 선배들을 위해 우리 반 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를 위해 기여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0대가 되자 머릿 속에 드론을 띄워놓은 것처럼 좀 더 큰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았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도 물샷틈없이 촘촘히 규칙을 정하고, 철두철미하게 교재연구를 하여 딱딱하게 가르치기보다는 내 교육철학과 신념을 지키며 그들의 자율성이 발휘되는 가운데 우리 반이 서로 믿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여유있게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정해놓은 틀에 어떤 반 아이들을 만나든 성공하는 황금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매 해 특별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 안에서 아이들과 학부모, 나만 아는 소중한 성장들이 쌓여갔다.

6. “원칙”을 지키는 “사랑”의 수업

앞선 과정을 거쳐 요즘 내가 맡은 반은 아이들의 “사랑”과 “개성”이 넘치고, 학부모들의 따뜻한 지지를 받는다. 남 앞에 내세울 만한 성공의 법칙은 없지만 내가 반드시 지키는 것은 “원칙”과 “사랑”이다.

1) 교육과정의 준수

우리는 때로 교사의 편의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체육의 표현영역, 미술의 판화나 조각, 조소 등 과정이 복잡하거나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 영역, 탐구수학이나 스토리텔링, 음악의 창작이나 국어의 연극, 온 책읽기 등 다양한 교육과정들이 임의로 삭제되거나 축소된다.

모든 교육과정을 준수하다 보면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고, 각각의 아이들은 다양한 수업의 주인공이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캐릭터를 잘 그리는 아이, 목소리가 큰 아이, 흥이 많아 분위기를 좌우하는 아이, 두뇌가 명석한 아이, 차분하게 복잡한 절차를 따라 높은 수준의 작품을 완성하는 아이, 수줍음이 많지만 모둠에 협조적인 아이.

미술 시간이면 도화지가 전부이고 체육 시간에는 피구공이 대부분이라면 늘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만 주인공이 될 수 밖에 없다.



6학년 국어_즉흥극



4학년 국어_그림자 연극



6학년 국어_연극



6학년 실과_캠페인



2학년 통합_가게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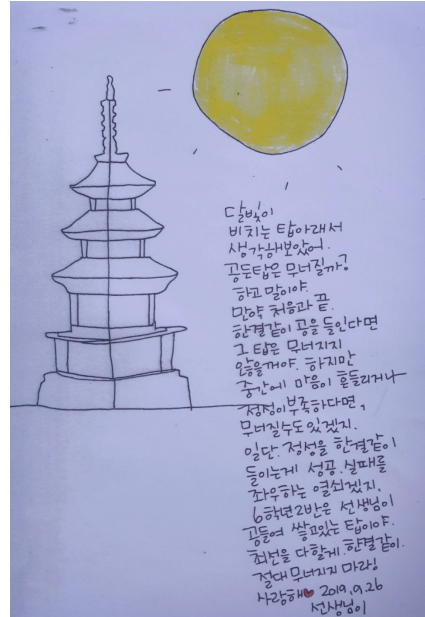
4학년 체육_포크댄스

2) 아날로그식 접근

나는 늘 아이들과 글을 쓴다. 일주일에 한 번 글쓰기를 하고, 수시로 아이들의 글을 엮어 책을 만든다. 그리고 아이들의 글엔 언제나 손글씨로 답을 한다. 아이들의 글에 그들의 삶이 오롯이 투영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손글씨로 소통하다보면 시나브로 사랑은 쌓이고 아이들의 글은 자신만의 색을 찾게 된다. 일석 이조로 이렇게 늘어난 글씨씨는 모든 수업에서 향상된 결과를 얻게 한다.

아이들에게 나는 자주 아날로그로 접근한다. 칠판에 판서를 하고, 종이에 그림을 그려 자료를 제작한다. 임의로 발표자를 뽑을 땐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사용하고, 퀴즈로 동기유발을 하거나 학습 내용을 점검할 땐 질문이 담긴 바구니를 사용한다.

재미있는 노래에는 학년을 막론하고 꼭 율동을 붙인다. 연극을 하거나 음악 발표회를 할 때엔 정식으로 무대를 꾸미고 작은 거라도 소품을 준비한다. 손이 가더라도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활동을 구상하고, 이를 반복 사용하여 학습자에게 온기와 함께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3) 디지털을 통한 학생 및 동료 교사들과의 콜라보

코로나는 아날로그를 표방하는 나에게 큰 시련이었다. 그러나 주저앉아 투정만 부릴 수는 없었다. 패들렛, 카훗, 줌, 팅커벨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했으며, 인디스쿨에 내 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도움이 필요한 초등 교사들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마을연계수업, 동아시아시민교육, 생태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부족한 전문성을 메꾸는 한편, 학생 뿐 아니라 교사도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학년 수학_수업영상제작 및 인디스쿨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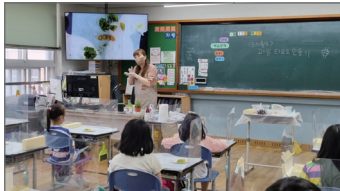
동아시아시민교육_다문화



마을연계_소방서



환경교육_재활용



마을연계_꽃바구니



마을연계_분식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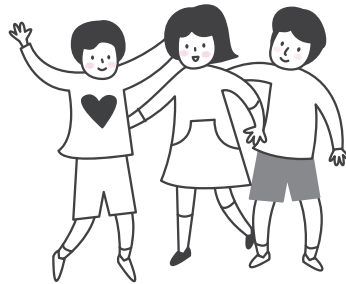
마을연계_업사이클링

7. 성장하는 교사

잔재주가 넘쳐나는 시대다. 교사의 개성 또한 넘쳐난다.

10여 년을 교직에 있었지만 정작 나 자신의 개성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물음표를 그릴 수 밖에 없지만, 때로 잔재주보다는 원칙과 사랑이 삶에 깊은 울림이 되고 변주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싶다.

나의 개성보다는 아이들이 가진 개성과 재주가 빛을 낼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원칙과 사랑을 돌이켜보며 계속 성장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 



즐거운 수업? 그저 어떻게 하는 건데?

인천작전초등학교 교사 최현선

1. 수업에 대한 고민

2015년에 신규 발령을 받았다. 첫째 나의 역할은 영어 전담교사였다. 나는 초등학생 때 영어를 포기했던 영포자 출신이다. 대학에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영어 공부를 했지만 영어가 정말 싫었다. 재미도 못 느끼겠고 영어에 재능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가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니 고민이 깊었다.

하지만 이런 나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영포자 출신이지만 외국 여행에 가서 남들과 즐겁게 영어로 대화하는 사람이다. 잘하든 못하든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하는 대화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학생 때 영포자가 된 건 흥미와 자신감이 없어서였다.

그래서 나의 목적은 하나였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 그래서 그 과목을 포기하지 않는 것. 초등학생 때를 떠올려보면 영어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사이에 엄청난 영어 실력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것보다는 자신감의 차이가 컸고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어졌다.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즐거운 수업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 성장

즐거운 수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떠오르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학생들을 사로잡는 선생님과 재미있는 수업 방식. 다음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했던 이야기다.

가. 학생들을 사로잡는 선생님

학생 때,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수업이 어떤 방식이든 즐거웠다. 보통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은 유머 있고 대화가 잘 통하는 선생님이다. 나는 유머를 좋아하는 편이고 학생들의 관심사인 만화, 아이돌, 게임과 같은 분야도 어느 정도 알았다. 학생들에게 친근한 교사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재미를 위한 쇼맨십도 아끼지 않았다. 학생들은 나를 좋아해 주었고 이 방법은 한동안 성공으로 다가왔다.

나. 재미있는 수업 방식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설문 조사를 해보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 가장 좋아하는 취미 활동은 게임이다. 그래서 수업에 신체활동과 게임을 접목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당시에 우연히 듣게 된 놀이 교육 연수는 흥미로웠다. 거기서 배운 활동과 그 외 수업을 보고 생각나는 다양한 게임을 수업에 적용시켜 즐거운 수업을 구상하곤 했다. 다음 예시는 영어 전담교사 때 했던 활동들이다.

(예시1)

듣기, 말하기 + 경쟁형 게임	학년을 묻고 대답하는 활동 (준비물 : 주사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급을 두 모둠으로 나눈다. (2~4모둠이 적합함) 2) 번갈아 가며 한 학생씩 나온다. 3) 모두 함께 "What grade are you in?" 하고 질문한다. 4) 앞에 나온 학생은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로 대답한다. "I'm in the ____ grade." 5) 주사위 숫자만큼 점수를 얻는다. 6) 위 활동을 반복한다. 7) 더 높은 점수를 얻은 팀이 승리한다.
단어 외우기 + 짜맞추기	단어를 외우는 활동 (준비물 : A4 도화지, 가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4 도화지를 16칸이 되도록 접은 뒤, 8개의 영단어와 뜻을 쓴다. 2) 가위로 자른 뒤, 16개의 카드를 무작위로 섞어 뒤집어 놓는다. 3) 번갈아 뒤집어 짝을 맞추기 기회를 얻는다. 3-1) 짝을 맞추면 성공. 해당 카드를 가져가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 3-2) 짝을 맞추지 못하면 실패. 기회를 상대에게 넘긴다. 4) 모든 카드를 찾았을 때, 카드를 더 많이 찾은 사람이 승리한다.
말하기 + 신체활동	비교 표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2) 교사가 "5명!" 처럼 인원을 외치면 근처에 있던 인원끼리 모인다. 3) 교사가 단어를 제시하면 비교급을 사용하여 순서대로 선다. (예) 교사 : Tall! 학생1 : I'm taller than you. 학생2 : You are taller than me. 4) 가장 먼저 순서대로 선 팀이 승리한다.

3. 성장통

당시에 내게 즐거운 수업이란 학생들이 재밌어하는 수업이었다. 그러다보니 그저 재미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다. 교과서만 따라가는 수업보다 훨씬 재밌고 학생들도 나를 좋아해주었다. 교사로서 즐거운 수업을 위해 고민하고 한 발씩 나아가며 성장하는 느낌이 좋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계를 느꼈다. 교사로서 성장통이 온 순간이었다.

가. 학생들과 친구가 되어버린 선생님

학생들과 친근해지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어느새 거의 친구가 되어버린 선생님. 친구처럼 잘 통하는 선생님과 또래 친구 같은 선생님은 다르다. 그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웠다. 학생들이 재밌으라고 망가지기도 하고 웃겨주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다.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다 보니 학생들이 선을 살짝 넘어왔을 때에도 지적하기 어려웠다. 나는 교사와 학생 간의 선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깊어졌다.

나. 주객전도된 목표

좋은 수업이라면 교육 과정을 수업에 적절하게 녹여내야 한다. 학생들이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물론 이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나는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 놀이를 남용했다. 때로는 수업 내용보다 놀이 방식을 설명하느라 시간을 과도하게 쓰기도 했다. 경쟁형 놀이에서는 학생들이 승리를 위해 배움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예시1)의 3번째 활동의 경우 학생들이 영어를 활용하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고 그냥 순서대로 빠르게 서는 데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4. 배움

또래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면 내가 겪은 성장통은 신규 교사들이 많이 겪는 성장통인 것 같다. 이러한 성장통을 극복하는 데에는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 아니 사실은 아직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가. 동학년으로부터의 배움

학교의 좋은 점을 꼽자면 선배가 동료로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사실 임용에 합격하면 ‘학교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내가 교사라고?’하는 생각이 든다. 회사와 달리 사수도 없는 학교에서 나를 가장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은 동료 교사, 그 중에서도 동학년 선생님들이다. 초임 발령지에서 내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선생님이셨던 분들을 동료로 만났다. 그런 선생님들의 수많은 경험은 초보 교사의 간접 경험이 된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찾아가 고민을 상담하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들을 해 주신다.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추천하는 것은 동학년 선생님과 협의하여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다. 초보 교사로서 열정이 과해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기 쉽다. 그럴 때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중심을 잡아주신다. 함께 협의한 내용에 나의 개성을 더해 수업을 하는 경험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다. 이 때 느낀 점은 의외로 학생들은 그저 재미만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돈된 수업은 적절한 학습을 제공했고 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며 즐거워했다.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보고 나 또한 많이 배웠다. 목표를 달성하는 즐거움이 있는 수업에 대해 가장 많이 배웠던 건 동학년 선생님들의 가르침이었다.

나. 연수를 통한 배움

교사는 자칫하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되기 참 좋은 직업이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수업이므로 누구와 비교되지 않는다. 그래서 열심히 하더라도 내 경험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물 밖으로 나가야 한다. 우물 밖으로 나가는 방법 중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은 다양한 연수다.

배움을 위해 흥미가 있는 연수를 찾아다녔다. 평균 연간 130시간 이상의 연수를 들었다. 연수를 받으면 가능한 빠르게 수업에 적용해보았다. 어떤 연수는 효과적이었고 어떤 연수는 나와 학생들에게 맞지 않았다. 일부만 적용되는 것도 있었다. 그렇게 여러 연수를 듣고 따라하며 교사로서 나의 스타일을 찾아 나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연수는 2년차 때 받은 PDC 연수인데 그저 친절한 교사였던 나에게 단호하면서도 친절한 교사에 대해 알려준 연수였다. PDC를 적용해보려고 노력하며 교사와 학생간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을 많이 연습했다. 그 배움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 현재 나의 생활지도 방식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많이 활용하지 않지만 학급에 안정감을 주는 친절하면서 단호한 교사라는 가르침은 늘 실천하려고 노력중이다.

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배움

인천 교육의 장점을 꼽으라면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아닐까 싶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사로서 같은 관심사와 고민을 가지고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모여 함께 학습하는 공동체다.

나의 관심사인 즐거운 수업을 위해서는 즐거운 관계가 있는 학교가 되어야 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생과 학생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관계는 참 중요하다. 하지만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없었다. 학생들이 싸우기라도 하면 이를 풀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들어간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주제는 '회복적 생활교육'이었다.

솔직히 교실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한다고 모든 문제가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하는 다양한 연수를 들으며 새로운 것을 배워 나가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된다. 가장 자주 참여하는 다른 전문적학습공동체는 ‘놀이교육’이다. 내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주제기도 하고 즐거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주제. 놀이교육 공동체에서 많이 배우고 이를 적당히 수업에 적용한 것이 내 수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배움이 있으면서 과정도 즐거운 수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 나눔을 통한 배움

동학년, 연수, 전문적학습공동체로부터의 배움은 다른 이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배운 것이었다. 이미 각자의 교실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정련된 경험의 나눔은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나는 나의 경험도 나누어 다른 선생님께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놀이교육 지원단, 미래교육 지원단과 같은 활동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법은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즐거운 수업이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했던 노력을 공유하기 위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저 앞만 보고 나아가지 않고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조금 더 즐거운 교실에 대해 고민했다.

5. 현재의 수업

현재 내가 지향하는 수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의 본질인 학습에 집중할 것. 둘째, 가능하면 즐거운 방식으로 수업할 것(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참여가 많은 수업이 좋다.). 셋째, 관계 지향적인 활동을 통해 수업 외적으로도 즐거운 학습을 만드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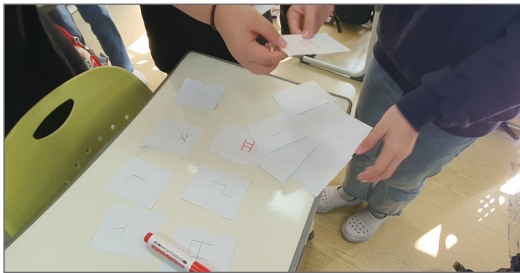
이를 위해 동학년 선생님으로부터의 배움, 연수를 통한 배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배움을 모두 활용해본다. 그리고 우리 반에 알맞은 것을 취사선택한다.

나는 재미있는 활동을 좋아하는 선생님이다. 그래서 놀이교육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살핀다. 첫째 이후 영어를 가르친 적이 없어서 (예시1)에서 한 활동을 업그레이드 시켜 수업을 한 적은 없지만 이를 지금 스타일로 바꾸어보자면 이런 식이다.

말하기 + 신체활동	비교 표현
	<p>1) 학생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p> <p>2) 교사가 "5명!"처럼 인원을 외치면 근처에 있던 인원끼리 모인다.</p> <p>3) 교사가 단어를 제시하면 순서대로 선다.</p> <p>(예) 교사 : Tall! (키가 큰 친구부터 작은 친구까지 순서대로 서기)</p> <p>4) 먼저 만든 모둠부터 순서대로 이야기한다. (순서대로 모든 모둠에게 기회를 준다.)</p> <p>학생 A : "I'm taller than B." / 모두 : "A is taller than B."</p> <p>5) 모든 학생이 이야기한 모둠은 랜덤 뽑기 프로그램으로 점수를 얻는다.</p> <p>6) 4번 활동에서 못하는 학생을 도와준 모둠은 협동 점수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p>

여전히 재미있는 놀이 활동을 하지만 바뀐 점이 있다. 3)~4) 활동을 보면 우선 학생들이 경쟁에 집중하느라 잊었던 학습 내용에 집중하도록 한다. 순서대로 서는 것은 빠르게 하고 비교 표현을 모두 이야기하도록 한다. 학생 A가 스스로 이야기해보고 모두가 따라하며 복습한다. 또한 4)~5) 활동에서 점수를 랜덤으로 부여하는 것, 못하는 학생을 도와준 모둠에 추가 점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협동을 유도하고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돕는다.

〈즐거운 수업을 위해 노력했던 활동 예시〉



한글날을 맞아 놀이 활동을 하는 모습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나눔을 하는 모습

6. 즐거운 수업?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즐거운 수업은 무엇일까? 아마 교사마다 학급마다 다를 것이다. 배움이 있되 과정까지 즐거운 수업을 위해서 나는 놀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배움을 적용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 반 학생들은 놀이가 있는 수업을 꽤 즐겨워한다. 하지만 놀이라는 주제보다는 교사와 학생들의 특성에 맞춰 계속 즐거운 수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즐거운 수업의 핵심이 아닐까 싶다.